



SOCIETY  
&  
VALUES

미래를 건설하는 세계 청소년들



WORLD YOUTH  
BUILDING A FUTURE

U.S. DEPARTMENT OF STATE · BUREAU OF INTERNATIONAL INFORMATION PROGRAMS  
미 국무부 / 국제정보프로그램국



Society & Values: 통권 12권 / 제7호

편집장	George Clack
실무편집인	Richard W. Huckaby
편집실장	Charlene Porter
제작부장	Christian Larson
제작차장	Chloe D. Ellis
웹제작	Janine Perry
카피편집인	Kathleen Hug
사진편집인	Maggie J. Sliker
일러스트	Vincent Hughes
표지디자인	Christian Larson
참조전문가	Anita Green
기고편집진	Alexandra M. Abboud
	Mark Betka
	Robin Yeager
편집위원	Jeremy F. Curtin
	Jonathan Margolis
	Charles N. Silver

본 저널에 실린 모든 일러스트는 아래 출처의 사진을 바탕으로 Vincent Hughes가 구성했습니다.

표지  
집짓기: American Jewish Society for Service 제공.

본문 이미지  
번지점프: © AP Images. 카누타기: 부다페스트 Planet-Foundation 제공. 양궁수업: 노스캐롤라이나 주 롤리 YMCA of the Triangle 제공. 축구: Barry Fitzgerald/U.S. Department of State. 수업: CORBIS/Imagine. 학습: Brian Newman/Washington State University. The Center to Bridge the Digital Divide. 나무심기: Myrleen Ferguson Cate/Photo Edit.

미 국무부 산하 국제정보프로그램국은 <e저널 USA> 제호 아래 총 5종— Economic Perspectives, Global Issues, Issues of Democracy, Foreign Policy Agenda, Society & Values—의 온라인 저널을 출간하고 있으며 미국의 사회, 가치, 사상, 제도 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과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매달 영어로 당월호가 발간되고 난 후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번역본이 후속적으로 게재됩니다. 필요에 따라 특정 호는 아랍어, 중국어 및 페르시아어로 번역·발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의 저널은 통권과 호수에 따라 분류됩니다.

본 저널에 실린 주장이나 의견들은 반드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나 정책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 국무부는 본 저널에 링크된 인터넷 사이트들의 내용이나 액세스 가능 여부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그러한 책임은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있음을 밝혀둡니다. 본 저널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도표들은 저작권 제한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한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복제 또는 번역될 수 있습니다. 단 저작권이 제한된 경우에는 본 저널상에 표시된 해당 저작권 소유자에게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국제정보프로그램국은 최신 호와 지난 호들을 비롯해 앞으로 발간 예정인 저널들의 목록을 다양한 파일 포맷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http://usinfo.state.gov/journals/journals.htm>).

본 저널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거주하시는 국가 주재 미국대사관이나 본지 편집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인

eJournal USA  
IIP/PUBJ  
U.S. Department of State  
301 4th St. S.W.  
Washington, D.C. 20547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메일: eJournalUSA@state.go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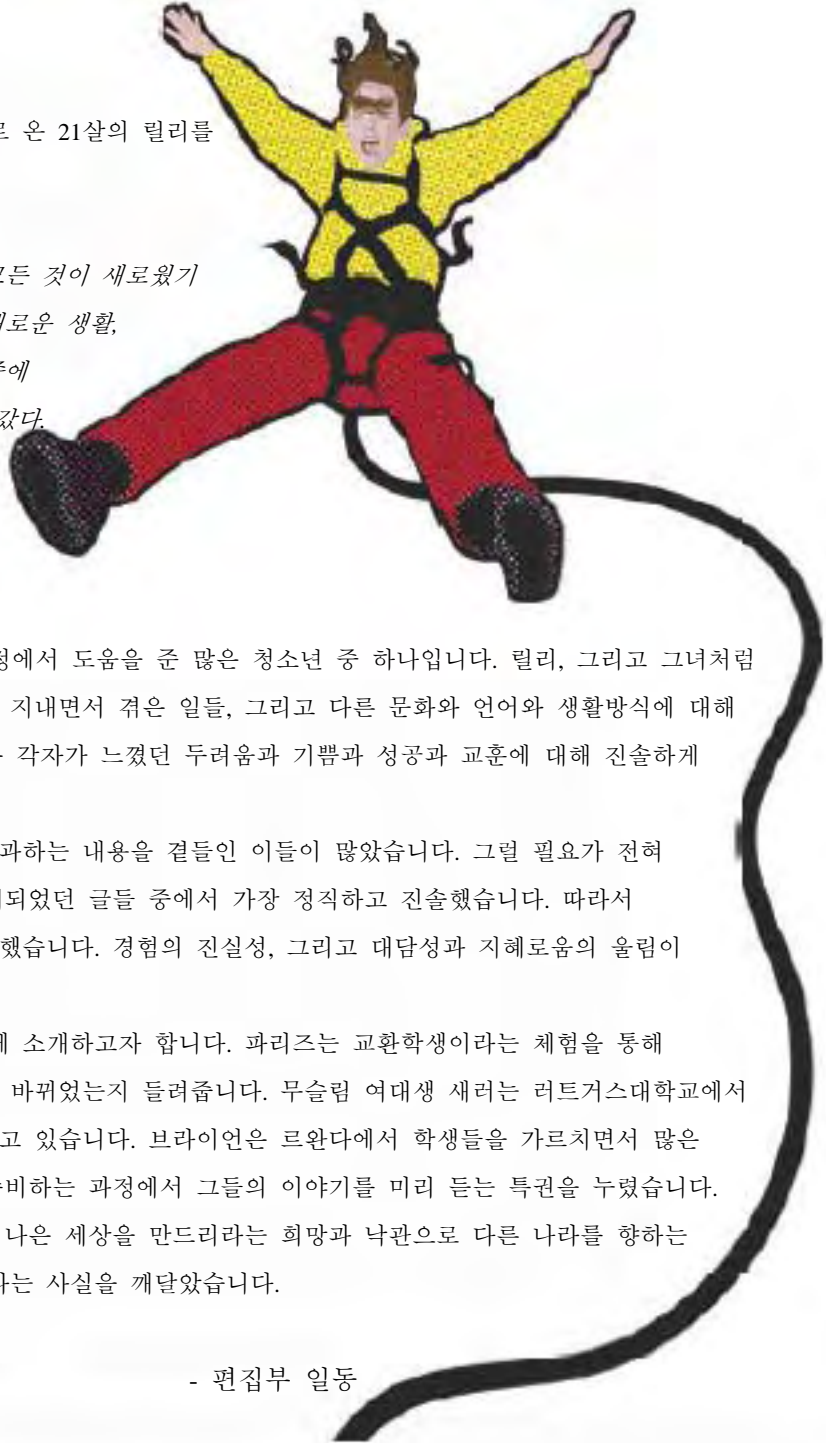
# 이번 호에 대한 소개

내 인생에서 가장 멋진 한 해였다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아주 많이 성숙해졌다.

2003년 교환학생으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온 21살의 릴리를 소개합니다.

처음에는 익숙해지기가 무척 어려웠다. 모든 것이 새로웠기 때문에 첫 이삼 개월은 힘들게 보냈다. 새로운 생활,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들, 음식, 스케줄에 익숙해져야 했다. 그러다가 나는 적응해 갔다.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릴리는 <e저널 USA> 이번 호를 만드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많은 청소년 중 하나입니다. 릴리, 그리고 그녀처럼 다른 나라에서 온 청소년들은 교환학생으로 지내면서 겪은 일들, 그리고 다른 문화와 언어와 생활방식에 대해 배우게 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각자가 느꼈던 두려움과 기쁨과 성공과 교훈에 대해 진솔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원고를 보내면서 서툰 영작 실력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을 곁들인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지금까지 게재되었던 글들 중에서 가장 정직하고 진솔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문법적 오류는 문제될 것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험의 진실성, 그리고 대담성과 지혜로움의 울림이 있는 글이면 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들 청소년을 독자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파리즈는 교환학생이라는 체험을 통해 고국 아제르바이잔에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들려줍니다. 무슬림 여대생 새리는 러트거스대학교에서 실험적으로 진행되는 다문화 생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은 르완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본 편집부는 이번 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미리 듣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아울러 이들 청소년이, 자신의 제스처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라는 희망과 낙관으로 다른 나라를 향하는 전 세계 청소년 수천 명 중 빙산의 일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 편집부 일동



SOCIETY & VALUES

미 국무부 / 2007년 7월호 / 통권 12권 / 제7호
http://usinfo.state.gov/pub/ejournalusa.html

미래를 건설하는 세계의 청소년들

가족 이야기

4 “정말로 우리 아이들인 거죠”
호스트 부모 에릭과 릴라 마커스 인터뷰
오하이오 주 비버크릭에 사는 호스트 부모 에릭과 릴라 마커스가 로터리 국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해 말한다.

8 아이들이 말한다
마커스 가정에서 생활한 교환학생 4명의 체험담.

삶의 교훈을 주고 받기

11 로마의 환대
저스틴 브릿-김슨,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
한 미국인 대학생이 로마에서 친구들을 사귀며 생활과 노동의 리듬을 배웠다.

13 삶을 변화시킨 경험
파리즈 이스마일자데

국제적 사고방식을 보유한 한 아제르바이잔인 전문 직업인이 미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낸 경험과 10년 후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회고한다.

15 사이드바: FLEX와 YES
외국인 학생들의 미국 유학을 위한 미 정부 프로그램 소개.

16 세상을 바꾼다
알렉산드라 M. 아부드, 스태프 라이터

국제적·사회적 이슈에 참여하는 세 명의 젊은이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포토 스토리

19 축구 여행
전 세계 청소년 30명이 미국에서 축구 지도를 받고 2006년 월드컵 여행 길에 오르면서 평생토록 남을 추억을 만들었다.

22 다양성이라는 환경에서 생활하고 학습하기

중동 공존의 집 회원들과의 웹 채팅

러트거스대학교에서 다문화 사회실험을 진행하는 여대생들이 각자의 경험과 교훈에 대해 말한다.

28 과거의 메아리 속에서 2020년으로 나아가기

컴퓨터 실력이 뛰어난 미국 젊은이들이 르완다로 떠나 그곳 젊은이들의 컴퓨터 학습을 도왔다.

30 르완다에서의 점심

브라이언 뉴먼

점심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다가 타인을 이해하게 된 이야기.

31 추모 행진을 하면서

리 로머라인

한 미국인 학생이 정보기술을 가르치고 용기를 배우고자 르완다로 향했다.

32 Inspire, Inform, Involve

온라인 공동체 TakingITGlobal을 통해 더 넓은 세상에 도달하는 젊은이들의 이야기.

34 온라인으로 만나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마이트레이 도시

한 인도 소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면서 광활한 여행길에 올랐다.

앞으로 나아가기

36 국제관계의 개인적 체험

살린 포터, <e저널 USA> 편집실장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은 세계를 보는 시야를 넓힌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수백만 명이 이러한 기회를 누렸다.

39 무엇을 할 것인가?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독자들을 위한 정보.

40 정보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자신의 필요와 이해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으려는 독자들을 위해 대표적인 국제교류 프로그램들을 선정했다.

**온라인 비디오**

*체험학습*  
월드 러닝 비디오  
(사용 허가를 받음)

*지구촌*  
NJN 뉴스  
(관련 본사 소유)

<http://usinfo.state.gov/journals/itsv/0707/ijse/ijse0707.htm>

## “정말로 우리 아이들인 거죠”

호스트 부모 에릭과 릴라 마커스와의 인터뷰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고 공부하는 청소년은 그러한 경험을  
일생에 한 번뿐인 여행으로 회고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거듭 반복되는 경험이다. 비정부기구가 후원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장기적으로 봉사하는 가정인 것이다. 이들 가정은 매년 문을 활짝 열고  
다른 나라에서 온 청소년들을 환영한다. <e저널 USA>에서는 오하이오 주 비버크릭에서 그러한 가정을 찾았다.  
에릭과 릴라는 비영리, 비정부 프로그램인 로터리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을 맞이한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82개국에서 운영되며 매년 80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다.  
지역마다 로터리 클럽 회원들을 모집하여 방문 학생들을 위한 홈스테이 가정을 제공하고,  
많은 지역사회 가정의 지원을 받고 있다. 에릭과 릴라 마커스는 세 아이 중 첫째가 대학으로 떠난  
1998년부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7개국에서 온 8명의 학생들이 짧게는 몇 주 동안,  
장게는 1년 내내 머물렀다. 에릭과 릴라는 살린 포터 <e저널 USA> 편집실장에게  
호스트 부모로서의 경험담을 얘기했다.*

**Q:** 새로운 교환학생이 집에 온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에릭:** 호스트 가정이 되려는 사람과 학생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15년 정도가 걸립니다. 아이들도 부모를 파악하려면 같은 시간이 걸리지요. 그런데 교환학생은 누군가의 가정에 들어가면서 파악할 시간이 15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양쪽 다 처음에는 항상 긴장합니다. 호스트 가정에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용납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 그래서 항상 경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잘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2년 전에 아르헨티나에서 온 여학생이 있었는데, 아주 대단한 아이였습니다. 마치 우리 집에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릴라:** ‘소중한 사람이었어요.(She’s a keeper.)’ 이 표현을 그 애한테 가르쳤는데, 몹시 좋아하더군요. 심지어 인터넷 닉네임도 ‘keeper’로 바꿀 정도였어요.

**에릭:** 처음부터 우리 애들 중 하나였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하고 아주 친했습니다. 그 애가 여름에 왔기 때문에 들어서 ‘티키 바’라는 걸 집 밖에 만들었습니다. 석유 램프며 크리스마스 트리용 전구들을 갖다 놓고는 작은 우산을 쫓은 무알콜 음료를 마시곤 했습니다.

**Q:** 호스트 가정으로서 어떤 영향을 받았습니까? 세계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요?

**에릭:** 무엇보다도 저는 일곱 개 나라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같습니다. 제게 이메일을 보내고, 집사람에게도 이메일을 많이 보내지요.

**릴라:** 우리 아이들 ‘같은’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아이들인 거죠. 우리 아이들이에요. 제게 ‘엄마’라고 부르죠. 그 아이들을 사랑해요.



사진 제공: 크리스티나 켈바르스카야  
 에릭 마커스 주니어, 교환학생 크리스티나 켈바르스카야, 에릭 마커스, 릴라 마커스(좌측부터)

하고 물으면 “예, 좋아요!”, “월마트에 갈까?” 하면 “예, 좋아요!”, “야구 보러 가고 싶니?” 하면 “예, 좋아요!”, “친구 집에 갈 건데 같이 갈래?” 하면 “예, 좋아요!” 하는 겁니다. 무조건 외투를 입고 나갈 준비를 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부모랑 함께 있는 걸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친자식들하고 다른 점이지요. 친자식들에게는 부모와 함께 있는 게 멋진 모습이 아닙니까.

집에 활기를 불어넣는 애들이에요. 저랑 남편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빈 등지에 앉은 새처럼 된답니다. 슬픈 일이지요. 우리가 지은 이 멋진 집은 대가족에게 어울려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생활하는 게 정말 재미있어요.

아이들이 실수하는 걸 보는 게 재미있어요. 큰 실수라도 말이지요. 애들이니까 배워야지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슬피 할 때 다독겨주고, 기운나게 해주고, 그리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게 즐거워요.

아이들이 향수병에 젖을 때가 있어요. 교환학생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죠. 정말 심하게 향수병을 앓아요. 아이들이 자기 가족이나 친구랑 연락하고 지내는 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24시간 내내 연락할 순 없잖아요. 아이들은 자유롭게 생활하면서 어른이 되는 거죠.

**에릭:**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아이들이 ‘싫다’는 말을 별로 안 한다는 겁니다. 엄마하고 아빠랑 뭘 하자고 하면 여기 십대들은, “음, 엄마하고 아빠랑 같이 나가자고요?” 하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교환학생들한테 “가게에 갈까?”

교환학생들은 무엇이든 궁금해 합니다. 아마도 자기 집에서는 미국 십대들하고 비슷하겠지만, 이곳에 와 있기 때문에 집에서는 하지 않을 일도 하려고 합니다. 진짜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실제로는 자기 부모로 생각하지 않아서지요. 그렇지만 헤어질 때쯤이 되면 우리는 ‘엄마’와 ‘아빠’가 돼 있습니다. 보통 로터리 교환학생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에게 엄마 아빠가 두세 명 정도 생깁니다. 아이들도 실제로 ‘엄마’ ‘아빠’ 하고 부르는 게 정말 좋습니다.

**Q:** 교환학생들은 그 밖에 어떤 점에서 택의 자녀들하고 비슷하거나 다릅니까?

**릴라:** 억양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죠. 하지만 우리 애들처럼 똑같다고 생각해요. 울고, 피가 나고 말이에요. 그저 아이들이지요. 우리 애들처럼 말썹을 피울 때도 있고요.

**에릭:** 우리 애들처럼 어리석은 일도 한답니다.



사진 제공: 훌리에타 메자노  
에릭 마커스, 피차몬(태국), 그리고 훌리(아르헨티나).

**릴라:** 그래도 개들은 더 조심성이 있어요.

**에릭:** 숙제를 안 한다든지, 뭔가 하지 말아야 할 걸 한다든지, 이따금 말썹을 피운다든지, 뭐 우리 애들하고 똑같습니다. 결국 침대는 침대지요. 똑같은 틀에서 만들어 낸 것 같습니다. 딱 한 가지 다른 점이려면 다른 나라에서 왔다는 것이겠지요. 억양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다른 문화를 배우는 것도 재미 있습니다. 태국에서 온 여학생이 있었는데, 두 주 동안 있다가 다른 부모들에게로 갔습니다. 한번은 아시아 식료품 가게에 같이 갔는데, 거기서 태국산 식재료를 정신없이 담더군요. 집에 와서는 그 학생이 태국 음식을 한 상 가득 만들어 줬는데, 아주 맛있었습니다.

**릴라:** 정말 대단했어요.

**에릭:** 그렇게 해서 교환학생들의 나라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배우고, 학생들은 또 우리나라에 대해 배우는 것이지요.

어떤 학생들은 도착했을 때 영어 실력이 좋지 않습니다. 영어 배우는 걸 옆에서 도와 주다 보면, 떠날 때쯤에는 미국 사람처럼 말하게 되지요.

**Q:** 교환학생들을 상당히 개인적인 차원으로 받아들이시는데, 마커스 씨 부부께서는 국제교류라는 측면에서도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십니까?

**릴라:** 네, 그래요.

**에릭:** 저는 로터리 클럽 활동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협의회에도 참석하지요. 2년 전에 로터리 클럽 회장 말씀이, 열 일곱 살짜리들 모두가 교환학생이 된다면 전쟁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 그 나라에 대해 직접 배우면서 진정한 세계 시민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 전쟁하는 걸 원하지 않게 되지요. 자명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제공: 릴리 빌로보스 길베르트  
미국 관광여행은 로터리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주요 활동 중 하나다. 2004년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를 견학중인 릴리 빌로보스 길베르트(우측 하단).

**Q:** 이곳 지역사회는 어떻습니까? 이곳 비버크릭에서 부부께서는 교환학생들을 친구에게, 그리고 식료품 가게에 가면서 이웃들에게 소개하시지요. 그러면서 이웃과 친구들이 다른 나라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십니까?

**릴라:**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만큼이나 다른 사람들도 모두 교환학생들을 좋아하게 돼요. 학생들은 여기 있는 동안 겪은 일에 대해서 나중에 신나게 재잘댈 거예요. 이곳 사람들은 학생들을 좋아하고 도와주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요. 장갑처럼 꼭 들어맞는 다니까요.

**에릭:** 고등학생들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교환 학생들은 학급에서 융화가 잘 됩니다. 학교 사람들 모두가 그 아이들을 압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을 만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터리 프로그램에서 가장 좋은 점은 미국 아이들도 교환학생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외국 학생들이 미국에 오면, 미국 학생들은 그 학생들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일 대 일 교류인 셈이지요. ■

본 인터뷰 내용은 미국 정부의 견해나 정책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아이들이 말한다”

교환학생들의 마커스 가정 홈스테이 경험담



## 크리스티나 겐바르스카야

크리스티나는 러시아 시베리아 튜멘 출신이다. 그녀는 2007년 로터리 교환학생으로 에릭과 릴라 마커스 부부의 집에서 홈스테이 체험을 했고 비버크릭 고등학교에 다녔다. 러시아로 돌아온 그녀는 현재 외국어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번역가 지망생이다.

미국에 왔을 때 나는 약간 겁이 났고 영어 실력은 좋지 않았다. 모든 게 새롭고 낯설었다. 마커스 씨 가족은 내가 미국 문화를 배우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미국에 대한 시각을 스스로 기르도록 도와 주었다.

우리는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추억은 축구, 농구, 야구 경기를 보러 간 일, 호숫가 별장에서 주말을 보낸 일, 낚시하러 간 일, 릴라 마커스와 그림을 그린 일 등이다. 나는 릴라와 함께 커다란 그림 두 장을 그려서 러시아에 있는 엄마에게 보냈다. 아주 재미있었다!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으리라 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리고 나는 에릭 씨 가족 전체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았다. 모두 함께 가족 휴가를 떠났다. 나도 에릭 씨 가족인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무척이나 즐거웠다.

## 하비에르 알파로

하비에르는 코스타리카 알라후엘라 그레이시아 출신이다. 그는 1999년 로터리 교환학생으로 마커스 가정에서 홈스테이 체험을 했다. 25살인 그는 P&G사에서 산업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으며 재경 분야의 석사학위를 준비 중이다.

기억나는 일 중에서 최고의 순간은..., 밤늦게 뒷마당에서 혼자 축구를 하고 있었다. 엄마인 릴라가 내게 와서 말했다. “아들, 시간이 늦었다. 이제 안으로 들어오렴.” 집으로 들어오자 그녀는 내가 슬퍼한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말을 건넸다. 나는 향수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가장 멋진 일이 일어났다. 결코 잊지 못할 일이었다. 릴라가 가족 모두를 위한 점심을 차렸다. 다른 사람들 접시는 모두 흰색이었는데, 내 앞에 놓인 접시만 빨간색이었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 하고 있었는데, 릴라가 말했다. “넌 오늘 특별한 사람이란다.” 접시에도 똑같은 말이 적혀 있었다. 울컥해진 나는 릴라를 껴안고 키스하면서 고맙다고 말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관계는 정말로 돈독해졌다. 그래서 나는 릴라를 엄마라고 부르고, 릴라는 나를 아들이라고 부른다.

## 올다 릴리아나 빌로보스 길베르트(릴리)

릴리는 멕시코 구아나후아토 이라푸아토 출신이다. 그녀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1년 동안 로터리 교환학생으로 홈스테이 체험을 했다. 21살인 그녀는 대학에서 국제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다.



사진 제공: 릴리 빌로보스 길베르트  
2004년 미국 서부 여행 중 정류장에 있는  
교환학생 릴리 빌로보스 길베르트

내 인생에서 가장 멋진 한 해였다고 말할 수 있다. 국적과 문화와 관점과 생활 방식이 다른 사람을 여럿 만나게 됐다. 나는 아주 많이 성숙해졌다.

미국에 가게 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정말 흥분됐다. 1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지내는 것이 최대의 바람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에 가서 그 나라와 언어에 대해 배우고 싶었다. 알다시피 영어는 ‘비즈니스 언어’이자 ‘만국공용어’였기 때문이다.

나는 아주 행복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척 걱정이 됐다. 그곳 사람들이 친절할지, 그곳 도시는 어떨지, 뭐 그런 걱정들이었다.

처음에는 익숙해지기가 무척 어려웠다. 모든 것이 새로웠기 때문에 첫 이삼개월은 힘들게 보냈다. 새로운 생활,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들, 음식, 스케줄 등에 익숙해져야 했다. 그러다가 나는 적응해 갔다.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내가 세 번째로 홈스테이를 한 곳은 마커스 씨 부부의 집이었다. 정말 좋은 분들이었다. 행복한 분들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두 분은 호스트 부모 역할을 정말로 즐거워했다.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생활하면서 무언가 배울 수 있기 때문이어서가 아닐까.

릴라와 에릭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다. 언제든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내가 다른 나라에서 온 교환학생이니 이따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었다. 마커스 씨 가족은 항상 나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었다. 모두가 이해하지는 못할 부분이 있다. 우리는 교환학생으로서 국가적, 개인적 정체성을 항상 유지할 것이다. 일부 호스트 부모들에게는 이것이 혼란스럽겠지만, 릴라와 에릭은 항상 이해해 주었다.

‘작은 에릭’은 내가 그곳에 왔을 때 13살이었던 것 같은데, 아주 좋은 아이였다. 나는 에릭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따금 우리는 밥을 같이 먹거나 놀이를 함께 했는데, 결코 잊지 못할 추억이다. 나는 에릭과 멋진 시간을 보냈다. 지금도 이따금 인터넷으로 연락하고 지낸다.

미국에서 1년간 보내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다른 교환학생들과 함께 떠난 여행이었다. 나는 그 학생들과 아주 친해져서 지금도 여럿과 연락하고 지낸다. 나는 항상 그들을 좋은 친구들로 기억한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려고 한다.

나는 한 개인으로 성장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낸다는 것은 커다란 도전이자, 독립으로 나아가는 커다란 일보였다.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친해지면서 나는 글로벌한 사람으로 성장했고, 지금은 세상을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됐다. 나는 더욱 성숙해졌고, 이제 주위를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 교환학생으로 지낸 한 해 동안의 경험은 내게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나는 그때를 최고의 순간으로 항상 기억할 것이다.

당시 모든 상황을 설명할 만한 표현을 만든 기억이 난다. ‘세상은 자신이 만드는 만큼 넓어진다.’

### 홀리에타 메자노

*20살인 홀리는 아르헨티나 코르도바 출신이다. 그녀는 2005년 로터리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지금은 식품영양학을 공부하고 있다.*



사진 제공: 홀리에타 메자노  
오하이오에서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고 있는 교환학생 홀리에타 메자노(우측)와 릴라 마커스.

나는 오하이오에서 거의 1년 동안 네 군데의 가정에서 지냈다. 로터리 클럽에서는 삼사 개월마다 홈스테이 가정을 바꾸도록 하기 때문이다.

각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은 환상적이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 생활은 일종의 소규모 교류 활동이었기 때문이다. 집집마다 아주 달랐기 때문에, 전혀 다른 지역에 있는 듯했다!

나는 마커스 씨 집에서 여름 내내 보내게 됐다. 그곳에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재미있는 가족이었는데, 나를 가족의 일원처럼 받아들였다. 첫째 날 내가 들은 말은 “Mi casa es su casa.(내 집은 네 집이야)”였는데, 홈스테이를 하면서 그 표현 그대로 편하게 지냈다. 언제나 컴퓨터를 쓰고, 무엇이든 먹을 수 있었고, 정오까지 늦잠을 자도 괜찮았다, 하하!(하지만 여름이었기에 가능했지, 그렇지 않았다면 아침 일찍 나를 깨워서 학교에 보냈을 것이다!!!)

호스트 동생인 ‘작은 에릭’은 내 영어 공부를 항상 도와 주었다. 그는 내 어린 친구였다.

주말이면 우리는 인디언 레이크로 놀러 가서 ‘작은 에릭’이랑 ‘큰 에릭’과 함께 영화를 보거나 테이블 게임이나 카드 놀이를 하거나 수영을 하거나 보트를 타고 맥도날드에 가곤 했다!

주중에는 주로 엄마인 릴라와 시간을 함께 보냈다. 릴라는 내 말을 잘 들어 주었고 충고도 잘 해 주었다. 대단히 창의적이고 솜씨가 좋은 분이었는데, 함께 그림도 그리고 목걸이와 귀고리도 만들었다. 나는 그 물건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볼 때마다 릴라가 생각이 난다. 또한 릴라는 농담도 자주 하면서 나를 결코 혼자 내버려두는 법이 없었다.

교환학생이 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경험이다. 모두들 한 번쯤 경험해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다른 문화에 마음을 열게 하고, 다른 사고방식을 갖게 한다.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즐거웠던 순간들, 내가 머문 장소들, 내가 만난 부모들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집을 떠나 온 1년은 아주 긴 시간일 수 있지만, 분명한 점은 시간이 아주 빨리 흐른다는 사실이다. ■

본 수기의 내용은 미국 정부의 견해나 정책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로마의 환대

저스틴 브릿-김슨

*한 미국인 젊은이가 삶의 보폭을 로마에서 배운 리듬에 맞추고자 한다. 25살의 저스틴 브릿-김슨은 템플대학교 로마 캠퍼스에서 2004년 첫 학기를 시작했다. 그는 이탈리아 영화와 창조적 글쓰기를 공부했고, 같은 해 영화 및 커뮤니케이션 전공 학위로 졸업했다. 지금은 로스앤젤레스에 살면서 시나리오 작가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사진 제공: 저스틴 브릿-김슨  
저스틴 브릿 김슨, 2007년 캘리포니아 주 LA에서

비행기가 로마에 도착한 것은 2004년 1월 중순이었다. 겨울이 한창이었고, 거리에는 차가운 비가 영원토록 내리는 듯했다. 해외 여행은 처음이었는데, 그곳 언어를 한 마디도 모르는 상태였다.

시내로 들어와 수많은 표지판이며 광고판이며 현수막을 보니, 앞으로 언어장벽이 큰 문제겠다는 점을 실감했다. 첫째 날, 그리고 이후에도 나는 길을 잃어 현지인들에게 어리석게도 영어로 방향을 묻거나, 카페에서는 음식을 주문하면서 엉터리 이탈리아어를 구사한 기억이 난다. 그리고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은 환율이었다. 미국 달러보다 막강한 유로화는 내 현금카드를 사정없이 고갈시켰다.

또 하나의 문제는 커피였다.

스타벅스 점보 사이즈 컵에 담긴 커피에 중독된 원기 왕성한 미국인이 에스프레소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렸다. 카페인 한 모금이 담긴 작은 컵을 응시하면서 나는 종종 “나머지는 어디 있지?”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대미를 장식한 것은 아침 식사였다. 크루아상, 스위트롤, 도넛, 그리고 그 밖에 가지각색의 페이스트리 종류들. 달걀과 팬케이크와 베이컨과 토스트 없이 너 달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나는 해외 여행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학기 나머지 시간을 낯익은 환경에서 보내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기적적인 일이 발생했다. 소외감과 향수병을 한 방에 날려 버릴 사건이었다.

친구들을 사귀게 된 것이다.

사람들로 가득한 피아자 델 포폴로(‘사람들의 광장’이라는 뜻)를 용감하게 나아가다가 동료 학생들과 나는 한 작은 지하 주점을 발견했다. 가게 옆 칠판에는 값싼 음료들을 광고하고 있었기 때문에, 머리 쓸 일이 없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조만간 친구가 될 파브리시오, 페데리코, 안토넬로, 그리고 플라비아를 만났다. 건너편 테이블에 앉아 있던 그들은 우리에게 말을 걸고 싶어했다. 그러다가 파브리시오가 용감하게 자기 의자를 우리 테이블 쪽으로 끌고 왔다. 자신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파브리시오의 다른 일행들도 합석했다. 우리는 주점 문이 닫힐 때까지 대화를 하면서 각자의 문화를 비교하고, 커다란 유사점과 아울러 차이점도 배우가 됐다. 영업시간이 끝나자 우리는 거리로 나섰다.

폐점 시간 이후부터 시작된 여행은 로마 시내의 ‘밤샘 관광’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트레비 분수를 찾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영화 <달콤한 인생(La Dolce Vita)>에 등장한 명소이기도 했다. 피아자 나보나를 거닐면서는 밤늦게 거리에 나와 북적이는 예술가들과 상인들을 보니 경외심마저 들었다. 바티칸 시 벽을 따라 나아가던 우리는,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의 근무시간을 차 안에서 편하게 자고 있던 경비병들에게 야유를 보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스페인 계단’을 올라갔는데, 도시 전체의 장관이 한눈에 들어왔다. 웅장한 계단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새로운 경험에 대해 품었던 어떠한 의심이나 두려움이나 좌절감도 사라져 버렸다. 갑자기 새로운 환경이 내 집처럼 편안해졌고, 새로 알게 된 로마의 ‘형제들’과 함께 더 많은 밤샘꾼들을 기대하게 됐다.

학기가 계속되는 동안 파브리시오 패거리들은 내게 로마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제아무리 많은 지도와 여행서적도 현지 안내인에 필적하지 못했다. 친구들은 나를 눈에 잘 띄지 않는 번두리 나이트클럽으로 안내했다. 우리는 몰담배바, 디스코클럽, 주점, 카페 할 것 없이 단골로 찾아갔다. 탐험을 계속할수록 도중에 더 많은 친구가 생겼다. 사실 밤에 너무 자주 돌아다녔기 때문에 공부에는 신경을 덜 쓰게 됐다. 그러나 진짜 이탈리아가 교문 밖에서 나를 부르는데 어찌 책을 붙들고 있겠는가?

머지않아 나는 대학을 벗어난 ‘외부 도시’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졌다. 새로운 고향을 발견한 느낌이었다. 인생 최고의 순간을 즐기고 있다는 깨달음에 이르렀다고 상상해 보라. 로마에서의 경험보다 나은 것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현지인이 된 나는 수많은 관광객에게 길을 가르쳐 주고 이탈리아어로 대화를 나누었다. 이탈리아인 친구들과 날마다 만난 덕분에 더욱 자주 그리고 유창하게 구사했다. 친구들은 비공식적인 이탈리아어 교사였던 셈이다. 중요한 시험을 앞둔 밤이면 파브리시오와 페데리코가 중요한 부분을 퀴즈로 냈고, 이탈리아어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지름길로 안내해 주었다.

그러다가 마지막 주에 이르렀다. 기말고사를 보고 기말 페이퍼를 제출한 나는 그동안 사귀 친구들과 로마에게 작별을 고하면서 닷새간의 우울한 날들을 보냈다. 그 친구들의 동지애가 없었다면 해외에서의 내 생활은 문화적으로 풍부하고 보람된 경험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로마에서 생활하면서 나는 편안하고 느긋한 삶의 리듬에 빠져들었다. 이탈리아인들은 가족과 친구를 우선시하면서도 각자의 일을 열심히 잘 처리한다. 이탈리아인 친구들은 직업이 있었지만 미국에서처럼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일하지는 않는 듯했다. 3년이 지난 지금, 미국에서 나는 두 개의 다른 문화, 다시 말해 무미건조하게 일에 빠져 사는 미국식과 상대적으로 더욱 여유로운 로마식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 중이다.

해외에서 학기를 보내고 3년이 지난 지금, 로마는 내 머릿속에 각인돼 있다. 훌훌 털어버리고 이탈리아의 수도로 날아가 2004년 시절로 다시금 돌아가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 않는 날이 없다. 오늘날까지 유지되는 소중한 우정 덕분에, 돌아간다면 나를 반길 휴식처 두어 곳이 항상 대기 중이다.

로마 친구들이 미국에 올 수 있다면 나도 똑같은 호의를 베풀고 싶을 따름이다. ■

본 수기의 내용은 미국 정부의 견해나 정책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스페인 계단’을 올라갔는데, 도시 전체의 장관이 한눈에 들어왔다. 웅장한 계단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새로운 경험에 대해 품었던 어떠한 의심이나 두려움이나 좌절감도 사라져버렸다.

# 삶을 변화시킨 경험

파리즈 이스마일자데

*삶의 중요한 교훈은 아주 단순한 일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 미국에서 교환학생 체험을 한 아제르바이잔인 파리즈 이스마일자데도 그랬다. 미국에서 파리즈는 고교와 대학 시절을 교환학생으로 보냈다. 그는 아제르바이잔으로 돌아와 바쿠 소재 웨스턴대학교를 졸업하고 민주주의 운동가로 활동했다. 현재 파리즈는 아제르바이잔 외무부 외교아카데미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디렉터로 재직 중이다. 또한 동료 미국 유학생들로 구성된 아제르바이잔 동문회의 회장이기도 하다.*

1995년 당시 16살이었던 나는 미국 정부가 후원하는 미래 지도자 국제교류 프로그램에서 고등학교 교환학생으로 선정됐다. 당시에는 미국인과 미국 생활에 대해 상당한 선입관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우리나라가 세상에 알려진 지 고작 4년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제르바이잔 남부 시골 마을 란카란 출신인 나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 제한적이었다.

부모님과 나는 1년 동안 내가 미국인 호스트 가정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걱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흥분되고 설레는 마음이었다.

그날 공항에서 여행을 막 떠나려 할 때,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미국식 새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새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벌써부터 미국 친구들을 따라하려고 했던 것이다. 같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아제르바이잔 청소년 45명이 나와 함께 비행기를 탔다. 우리는 호스트 가정인 주(州)에 대해 얘기했고, 각자의 호스트 가정을 자랑하려고 했다. 한 친구는 자기 호스트 아버지가 은행가라고 말했다. 그러자 모두들 “와!” 하고 감탄했다. 다른 친구는 호스트 가족이 하와이에 산다고 말했다. “와!” 나는 별로 자랑할 게 없었다. 호스트 가족이 사는 오레곤 주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이다.

오레곤 공항에 도착하자 아제르바이잔어로 쓴 표지판을 든 호스트 가족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호스트 아버지께 아제르바이잔어를 어디서 배웠느냐고 묻자 그는 ‘인터넷’이라고 대답했다. 인터넷의 힘을 처음으로 알게 된 순간이었다. 당시 나는 인생의 남은 시간을 그렇게 멋진 발명품에 의존하게 될 줄 몰랐다.

우리는 차를 타고 가다가 맥도날드에 들러 밀크셰이크를 사기로 했다. 호스트 형제들은 더 큰 것을 가지려고 싸우기 시작했다. 내게는 그 순간이 선입관을 부수는 과정의 시작이었다. 미국인이나 아제르바이잔인이나 똑같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일상적인 욕구와 문제와 습관과 행동방식을 지닌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그렇듯 새롭고 낯선 장소에 도착한 첫날, 나는 설거지하는 법을 배웠다. 호스트 어머니는 두 명의 호스트 형제와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두 번 집안일을 맡으라고 말했다.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여자들만 설거지를 하기때문에, 약간 모욕적이었다.



사진 제공: 파리즈 이스마일자데

2007년 런던에서 열린 ‘민주주의와 거버넌스를 위한 존 스미스 신탁기금협회’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는 파리즈 이스마일자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호스트 어머니는 ‘세 아들’ 사이에 어떤 차별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내가 그녀의 명단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고, 실제로 집안일 경쟁에서 앞서고 싶었다. 이후 호스트 어머니와 나는 부엌일을 통해 가까워졌고, 저녁에 먹을 샐러드를 만들려고 채소를 자르면서 아제르바이잔에 대해 얘기를 나누곤 했다.

다음 주에는 세탁기로 빨래를 하고 건조기에 넣는 방법을 배웠다. 그리고 나서는 대형 슈퍼마켓에서 쇼핑하기, 편지를 써서 우체국으로 가져가기, 한 달 예산을 짜기, 일정을 계획하기, 수업에 등록하기 등 수많은 일을 배웠다. 그 결과 나는 자립적이고 성숙하고 계획성 있는 사람이 됐다. 아제르바이잔과 같은 전통사회에서는 아이들이 그러한 기술을 거의 배우지 않고 중년이 될 때까지 부모에게 계속 의존한다.

미국에서 배운 기술과 자립적인 성격은 지금까지도 유용하다. 고국으로 돌아온 뒤, 나는 부모님께 한 푼도 받지 않았고 혼자 힘으로 대학과 대학원을 다닐 수 있었다.

미국에 있으면서 나는 시민운동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배웠다. 전통적으로 모든 것을 정부에게 의존하는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시민과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기회를 찾기가 어렵다. 오레곤에서 나는 프로젝트 기획, 기금 모금, 스포츠 행사 조직, 지역사회 봉사활동, 견학,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브레인스토밍을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았다. 나는 견학을 위한 기금 모금 팀의 일원이 됐다. 팀원들은 나를 환영했고 참여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한 아제르바이잔 청소년에게는 엄청난 책임감이 요구되는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재미있기도 했다. 세차하기, 운동 경기 중 간식거리 팔기, 고등학교 소식지 만들기, 사진 찍기, 인터뷰 하기, 여행 계획 만들기 등의 작업을 통해 나는 성장해 나갔다. 아울러 창의력과 책임감을 키웠으며 팀워크를 익혔다.

*나는 견학을 위한 기금 모금 팀의 일원이 됐다. 팀원들은 나를 환영했고 참여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한 아제르바이잔 청소년에게는 엄청난 책임감이 요구되는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재미있기도 했다.*

귀국한 이래로 대학 소식지 편집장, 토론회 조직자, 민주주의 프로모터, 프리랜서 기자,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성공적인 동문회(www.aaa.org.az)의 창립자로 활동하면서 이러한 시민운동정신은 내 인생에서 뺄 수 없는 부분이 됐다.

교환학생으로 두 번째 미국행에 오른 나는 미국의 정치제도와 정치 참여 방식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하게 됐다. 나는 코네티컷 주 웨슬리언대학교를 다녔는데, 워싱턴 및 뉴욕과 거리상 가까웠기 때문에 국내외 정치에 관심을 가졌다. 클린턴 대통령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에게 아제르바이잔 석유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지원하라고 중용하는 편지를 처음으로 보낸 기억이 난다. 워싱턴에 있는 코네티컷 주 소속 하원의원에게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평화 프로세스를 지원하라고 중용하는 편지를 보냈다. 샘 게전슨 의원이 보낸 답장을 받았을 때 얼마나 흥분했는지 모른다.

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나갈 즈음, 나는 정치활동과 논쟁과 로비스트와 정치인들의 중심지인 워싱턴 DC에서 인턴 생활을 하기로 결심했다. 전략문제연구소의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나는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더욱 현명하고 실용적으로 논쟁하는 법을 배웠다.

그 해에 내가 얻은 교훈은 지금까지도 유용하다. 2007년 초, 나는 아제르바이잔 외무부에서 신입 외교관들을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이끌어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워싱턴에서 인턴 생활을 하면서 주미 아제르바이잔 대사관과 맺은 인연의 결실이었다.

현재 나는 민중운동과 교육 프로젝트를 통해 현대적이고 독립적인 아제르바이잔을 건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교환학생으로 미국에서 생활하며 얻은 교훈을 나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인생에는 항상 문제가 존재한다.



아울러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항상 존재한다. 기회는 무궁무진하다. 항상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실천을 모색해야 한다. 인생은 낭비하기에는 너무 짧다.■

본 수기의 내용은 미국 정부의 견해나 정책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FLEX와 YES

소비에트연방이 여러 개의 독립국가로 붕괴된 이래로 미국정부는 이들 국가의 중고등학생들에게 미국 유학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래 지도자 국제교류(FLEX) 프로그램이 창설되어 1990년 초 이래로 1만5000여 명의 학생들이 초청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우수 학생들을 미국으로 보내 삶과 사회와 자신의 미래에 새롭게 접근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FLEX는 미국의 일반 시민들이 시민운동에 참여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지역사회를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외국 청소년들에게 보여준다.

고국으로 돌아온 학생들은 미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고향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가도록 기대된다.

FLEX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가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로루시, 그루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러시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및 우크라이나이다.

FLEX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http://exchanges.state.gov/education/citizens/students/eurasia/flex/gallery.htm>

FLEX와 유사한 프로그램으로서 2002년 10월에 창설된 청소년 교환학생(YES) 프로그램은 이슬람계 인구가 많은 나라의 국민들과 미국인들 사이의 상호 이해를 구축하는 것이 비전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중고등학생들은 미국에서 1년간 생활하게 된다. 호스트 가정에 머물면서 학교를 다니고, 미국 사회와 미국의 가치를 배우는 활동에 참여하여 리더십을 함양하며, 출신 국가와 문화에 대해 미국인들을 교육하는 활동을 지원한다. 귀국한 학생들은 자신이 배운 리더십을 사회복지사업에서 활용한다.

2009년-2010년 1000명의 학생들을 목표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YES 교환학생들의 출신국은 서아프리카에서 동남아시아에 이르는 30여 개국이다.

YES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http://exchanges.state.gov/education/citizens/students/programs/yes.htm>

# 세상을 바꾼다

알렉산드라 M. 아부드

*세 명의 젊은이가 개발도상국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목표의식으로 성장하고 있다.*



사진 제공: 마거릿 W. 날/브레드 포 더 월드  
부르키나 파소에서 브레드 포 더 월드 프로그램의  
지원으로 아이에게 음식을 먹이는 모친

‘Idealist.org’라는 웹사이트에는 180여 개국의 5만7000여 곳에 이르는 비영리조직이 등록되어 있다. 이 웹사이트는 다양한 사회활동 및 박애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조직에서 경력을 쌓거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려는 사람들의 회합소 역할을 한다. Idealist.org에 등록된 다수의 미국 및 해외 비영리조직들은 “사람들과 아이디어와 자원을 최대한 연결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세계를 바꾸고자 하는” 대학생과 졸업생 등을 모집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연결되면, 전 세계에서 공동의 대의를 위해 협력하는 열정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사람들 간의 문화적 상호교류로 발전하기도 한다.

알렉산드라 M. 아부드 미 국무부 에디터는 관심 있는 사안을 지지하고자 활동 중인 젊은 미국인 세 명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그들의 이야기이다.

## 다이에너 스미스: 인간의 기본적 존엄성

*다이에너는 미국에 본부를 둔 비영리조직 ‘브레드 포 더 월드 (Bread for the World)’의 국제정책부서 인턴이다. 이 단체는 미국 및 해외에서 발생하는 기아와 빈곤의 근본원인을 다루는 정책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2006년 일리노이 주 휘튼대학교를 졸업*

*한 다이에너는 인류학을 전공했다. 현재 그녀는 23살이다.*

나는 항상 국제개발 관련 사안에 관심을 가졌다.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수단, 차드, 방글라데시 등지에서 삼사 년간 활동한 오빠에게서 고무받았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기아 완화에 관심이 있다.

15살이었을 때 나는 영양결핍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고, 기아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회적·심리적 영향을 미치는지 상상해 보려고 시를 썼다. 휘튼대학교 재학 시절에는 리베리아 피난민들과 가나에서 6개월간 함께 지내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매달 나는 요오드 첨가 식염, 옥수수-콩 혼합식품, 기름, 말린 완두콩, 옥수수 등의 식량 배급품을 분배할 기회가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자 프로그램 디렉터는 나에게 브레드 포 더 월드의 1년짜리 인턴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가나, 방글라데시, 이집트 등지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위한 정책변화를 주창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라고 제안했다.

나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 인간의 기본적 존엄성과 아름다움에 관심이 있다.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개척해 나갈지, 어떤 도전과제에 직면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과제에 어떻게 대처할지 관심이 있었다. 나는 배우는 사람으로서 브레드 포 더 월드에 들어갔다. 나는 미국정부가 대외원조를 어떻게

실행하는지 이해하고 싶었다. 수많은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것을 보았지만, 기금이 어디서 오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브레드 포 더 월드에서의 인턴 경험을 통해 미국의 시각에서 바라본 정치역학과 예산문제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됐다.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미국인들과 일하며 의식을 개선하게 된 것이 흐트하다. 방글라데시에서 성(性) 노동자들과 함께 여름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미국으로 떠날 무렵 한 방글라데시인 동료가 내게 말했다. “집에 가면 사람들에게 말해주세요! 여기서 무엇을 봤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말해 주세요. 진실을 말한다면 사람들이 들어줄 거예요.” 브레드 포 더 월드에 있으면서 내가 자주 경험한 상황이었다. 대단히 관대한 사람들이지만, 내가 목격한 것과 같은 세계의 현실을 모르는 미국인이 많다. 전 세계적으로 5초마다 아이 한 명이 굶주림으로 죽는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사람들은 열정적인 지지자가 될 것이다.

다이에너의 활동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bread.org>에서 찾을 수 있다.

### 알레한드로 마르티네즈: 가능성의 세상을 열다



사진 제공: 월드펀드  
멕시코 시티 외곽에 위치한 '마노 아미가 조메유칸 스쿨'에서 진행 중인 학급토론. 이 학교는 월드펀드의 파트너 학교이고 월드펀드의 재정교부금을 받는다.

알레한드로는 뉴햄프셔 주 다투머스대학교에 재학 중이다. 그는 동 대학 부설기관이자 외국인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래시어스 재단(Rassias Foundation)에서 근무한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교육을 통한 빈곤 감소 운동을 지원하는 미국 단체인 월드펀드와 함께 그는 모국인 멕시코로 돌아왔다. 다투머스대학에서 학업을 재개하기 전까지 그곳에서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이다. 그는 현재 22살이다.

나는 다투머스대학 스페인어과에서 1년간 공부한 후 래시어스 재단에서 스페인어 교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그 재단을 통해 나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월드펀드에 대해 알게 됐다. 나는 월드펀드 프로그램을 통해 멕시코에서 ESL 교사로 활동했다. 지금은 다투머스대학의 다른 학생들과 함께 캠퍼스 내에서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교육 개선에 관한 사람들의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멕시코와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많은 사람들과 달리, 나는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그 가치를 입증할 수 있다. 교육은 나에게 가능성의 세상을 열어주었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육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교육을 통해 더욱 준비된 지도자들이 배출되고, 자국의 미래를 진정으로 바꿀 능력이 있는, 강력하고도 적극적인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라틴아메리카가 탁월한 영어 교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 예컨대, 일과 학업을 동시에 해야 하는 대학생이 멕시코에는 많다. 그들이 영어를 배우면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다양한 직장을 찾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 미래의 직업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멕시코에서 영어를, 그리고 미국에서 스페인어를 가르친 경험을 통해 나는 교육문제를 제기하고 사람들에게 그 중요성을 이해시킬 기회가 있었다. 다투머스대학에서 교육문제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는 것은 내 문화와 배경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한 나만의 방식이었다. 교육문제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도움의 손길은 늘어나고 참여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나는 멕시코 시티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다양한 학생들을 만났다. 가장 인상적이고 고무적이었던 점은, 학생들 각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학교를 다니려고 얼마만큼의 어려움을 감내했는지 알게 됐다는 사실이다.

학생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덕분에 나는 스스로의 인생과 기회들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었다. 이들 학생은 나에게 영감이 돼 주었고 다른 사람을 더욱 적극적으로 돕도록 이끌어 주었다.

알레한드로의 활동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worldfund.org/> 또는 <http://www.dartmouth.edu/~rassias/>에서 찾을 수 있다.

### 소피아 라폰텐트: 우리 모두는 연결돼 있다



사진 제공: © AP Images/사이드 아짐  
에티오피아 농부들이 공장 가공용 커피 열매를 고르고 있다. 옥스팜은 에티오피아 농부들이 세계무역 협정을 활용하여 더 나은 곡물가격을 받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07년 6월 에티오피아와 세계적인 커피 체인업체 스타벅스는 에티오피아 커피 품종 일부에 대한 상표권계약을 체결했다.

소피아는 옥스팜 아메리카(Oxfam America)의 전국 대학 오거나이저이다.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에 본부를 둔 옥스팜 아메리카는 국제개발기관으로서, 빈곤 경감, 인도주의적 지원, 캠페인 및 지지 활동 등에 주력한다. 소피아는 텍사스 주 세인트에드워드대학교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학위를 취득했다. 그녀는 현재 25살이다.

옥스팜 아메리카에서 나는 공정한 국제무역 관련 사안에 대해 미국 대학생들을 교육하고 동원하는 활동을 한다. 무역은 빈곤 감소, 환경, 노동권 등 여러 중요한 사안을 아우르는 포괄적 주제이다.

옥스팜 아메리카에서 근무하기 전, 나는 옥스팜이 운영하는 일주일짜리 사회정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학생으로 참여했다. 'CHANGE 이니셔티브'라는 명칭의 이 프로그램에서는 대학생들이 캠페인, 지지 활동 및 참여 활동에 대해 배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나는 국제개발문제와 무역사안을 처음으로 접할 수 있었다. 바로 그곳에서 나는 학생들과 젊은이들에게 강력한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는 적극적이고 의미 있는 사회변화를 이끌어 내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결정과정에서 너무나 자주 소외되는, 사회적으로 혜택받지 못한 공동체와 결속해야 한다.

옥스팜은 전 세계에서 사무소를 운영한다. 우리는 시간대가 다르고 문화적 배경이 다르더라도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한다. 옥스팜에는 국제적인 목소리가 중요하고 강조돼야 한다는 신념이 존재한다. 예컨대, 지난 2년간 우리는 서아프리카와 중앙아메리카 지역의 농부들, 그리고 태국의 HIV/에이즈 운동가들을 미국으로 초청하여 미국인 동료들과의 만남을 주선했다. 우리는 미국의 정책이 해외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입법자들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미 의회 구성원들과의 만남을 준비했다. 사회운동가들은 다양한 사안에 대한 토론에서 중요하고도 진실한 목소리를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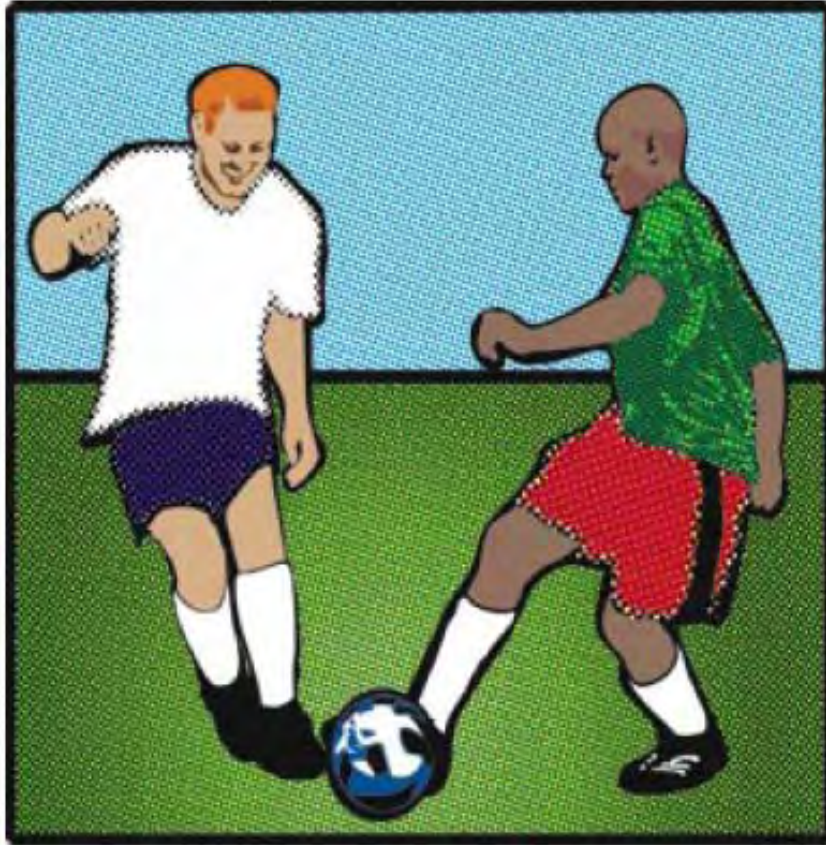
2002년 이래로 옥스팜은 더욱 공정한 무역 규정을 진흥하고자 <커다란 소리(The Big Noise)>라는 국제 청원서를 배포했다. 2005년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홍콩에서 개최될 즈음, 우리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2000만 개 이상의 서명을 모았다. 글로벌 차원의 추진을 통해 여러 개도국에서 시민사회의 역량이 강화된 것이다. 에티오피아만 하더라도 시민사회 파트너들은 300만 개의 서명을 모았다.

미국인으로서 나는 수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을 다행으로 여긴다. 이들 정보를 통해 국제문제와 미국의 대외정책에 관해 자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두에게,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점은 현 상황에 대한 균형 잡힌 뉴스를 찾는 일이다. 우리는 기술을 통해 시간대와 대양을 가로질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나는 스스로를 세계시민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다카르에서 텔리를 거쳐 덴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연결돼 있다고 확신한다. ■

편집자 주: 최근 소피아는 옥스팜 아메리카의 선임 오거나이저 겸 교육훈련 스페셜리스트로 승진했다.

본 기고문의 내용은 미국 정부의 견해나 정책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축구 여행



축구 훈련을 받으면서 실력이 늘었다.  
2010년 월드컵에서 국가대표로 뛸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연습할 것이다.  
-헨리 (우간다)-

13개국 중고등학교에서 온 축구선수 30명이 2006년 6월 미국에서 경기를 가졌고 훈련을 받은 뒤 월드컵 경기를 관전하기 위해 독일로 갔다. 2주일간의 여행은 미 국무부 교육문화국, 메이저리그 축구(MLS), 그리고 국제교류 비영리단체 월드 러닝(World Learning)이 후원했다. 국제교류 활동에 참가한 청소년 선수들의 출신국은 아프가니스탄, 바레인, 볼리비아, 중국, 인도네시아, 레바논, 말레이시아, 모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남아프리카, 우간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이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축구 여행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이들 선수 중 일부가 <저널 USA>에게 들려주었다.

운동선수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http://www.exchanges.state.gov/intlathletics/diplomacy.htm>

여러 나라에서 온 다양한 선수들과 만나고  
 함께 지내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국제적인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많은 지식을 얻었다.  
 필립(나이지리아)



사진 제공: 폴 모스/백악관

백악관 만남의 자리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함께 미소를 나누는 모로코 출신의 이마네. 이마네와 그녀의 동료 선수들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캐런 휴스 국무부 대민외교 담당 차관도 만났다. 휴스 차관은 선수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들 젊은이는 미래의 세계 지도자들입니다. 선수들을 소개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돼 영광입니다.” 휴스 차관은 선수단과 함께 뉴욕과 독일로 향했다.



사진 제공: 베리 피츠제럴드

청소년 축구대표단의 워싱턴 방문에서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는 프레디 아두(우측 붉은색 유니폼)를 포함한 DC 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을 만난 행사였다.

나는 여러 친구를 만났다. 그 중 최고는 레바논에서 온 타렉이었다. 나는 타렉과 같은 방에서 묵었다. 타렉은 형제 같았다. 타렉은 무슬림이었고 나는 기독교인이었다. 날마다 타렉은 잠자기 전에 꼭 기도하라고 나에게 말했다. 그래서 나는 타렉을 아주 좋아했다.  
 헨리(우간다)



사진 제공: 다이앤 본다레프

뉴욕 시에서 이틀간 머무는 동안, 나이지리아 출신의 이브라힘(좌측)과 파키스탄 출신의 세라즈가 MLS의 후원과 뉴욕 레드볼스 프로축구단 선수들의 감독 하에 연습하고 있다. 이들 어린 축구 팬들은 레드볼스와 LA 갤럭시의 경기를 관전하기도 했다.



사진 제공: 라파엘 헬릭

뉴욕을 떠나 독일에 도착한 축구단은 미국과 가나의 월드컵 경기를 관전하기 위해 누렘부르크로 향했다(사진은 프랑크푸르트 뢰메르베르크에서).

여행을 통해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스포츠맨 정신' 이다.  
최고의 선수가 되고 경기에서 이기려면  
희망과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정신력을  
가지고 경기에 임해야 한다.  
미국에서 지도받으면서  
나는 바로 그런 정신을 배웠다.  
바시르(자키스탄)



Photo by Rafael Herlich

사진 제공: 라파엘 헬릭

독일 청소년 리그 소속 팀들과 친선 경기를 가진 다국적 청소년 축구단.

다양한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신감이  
늘었다.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친해졌고, 그들과 함께  
연습하며 마음을 나눌 수 있었다.

메모리(우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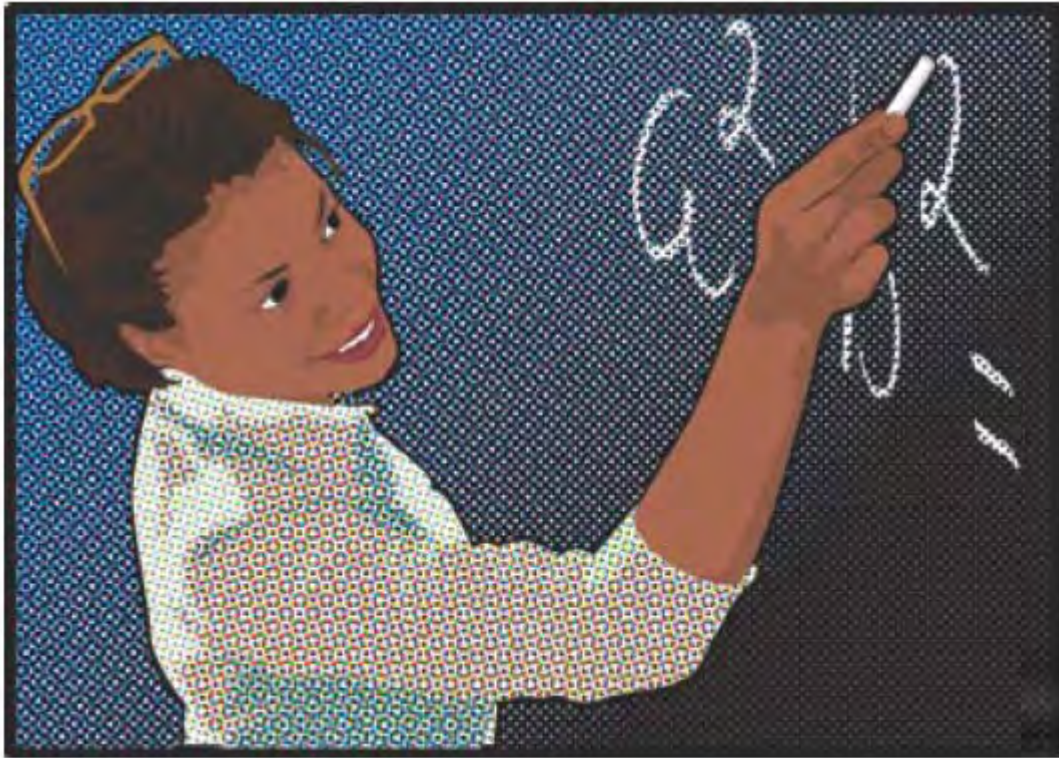


사진 제공: 월드 러닝의 델피 인터내셔널 프로그램

13개국 출신의 청소년들은 처음에 서로 낯설었지만, 2주간의 여행이 진행되면서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사진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하마드(말레이시아), 툴라니(남아프리카), 샴시르(인도네시아), 이브라힘(나이지리아)

## 다양성이라는 환경에서 생활하고 학습하기

‘중동 공존의 집’ 회원들과의 웹 채팅



뉴저지 소재 러트거스대학 여대생들이 캠퍼스에서 사회실험 생활을 하며 얻은 경험과 교훈에 대해 말한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종교가 다른 11명의 여대생들이 러트거스대학 캠퍼스에 마련된 ‘중동 공존의 집(Middle East Coexistence House)’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며 공부했다. 미국 태생, 1세대 미국시민, 중동 및 그 밖의 지역 출신인 이들 학생은 서로의 문화와 중동 관련 사안에 대해 배움으로써 종교가 다양한 사람들 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중동 공존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기로 했다.

학생인 대니얼 조셉스가 중동 공존의 집을 창립한 것은 러트거스대학에 재학 중인 유대인, 이스라엘인, 아랍인, 무슬림 및 기독교인 여학생들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국제분쟁의 해결과 협상에 대한 여성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함이었다.

대니얼은 러트거스대학교 부설 여자대학인 더글러스 칼리지에서 중동지역학 학위를 받고 졸업했다. 미국인 모친과 이스라엘인 부친의 딸인 대니얼은 중동 지역 협상가나 정책결정자가 되는 것이 꿈이다. 중동 공존의 집에 사는 대니얼과 세 학생들은

2007년 4월 usinfo.state.gov가 주최한 웹 채팅에 참여했다. 중동 공존의 집 소속 여대생들(이하 대화문에서 ‘MECH’로 표기)은 1시간 동안 채팅 참가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어떤 참가자들은 닉네임을 사용했고, 한 단체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미국 대사관 자료정보센터(IRC)의 시설을 통해 접속했다.

아래에 게재하는 사이버 대화는 내용의 명확성을 기하고 분량을 조정하기 위해 편집을 거쳤다.



온라인 비디오  
지구촌  
NJN 뉴스  
(관련 본사 소유)  
<http://usinfo.state.gov/journals/itsv/0707/ijse/ijse0707.htm>

**07:52:42**

**MECH 다니엘:** 안녕하세요, 다니엘 조셉스입니다! 여러분 모두 웹 채팅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ECH 달리아:** 안녕하세요. 달리아 [게이스]예요. 더글러스 칼리지 1학년이고요, 관심사는 외국어와 국제관계입니다. 팔레스타인 출신이고 11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에서 살다가 미국에 왔어요.

**MECH 새러:** 안녕하세요. 새러 엘나키브입니다. 중동 공존의 집에서 생활하는 무슬림 중 한 명입니다. 나이는 22살이고, 러트거스대학 식품영양학과 4학년입니다. 지금은 뉴저지 주 패터슨에 살고 있지만, 고향은 이집트고 세 살 때 미국으로 왔습니다. 질문 주시면 기꺼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MECH 사만사:** 안녕하세요. 사만사 샤키라고 합니다. 채팅에 참여하게 되어 반가워요. 대학 2학년생이고, 전공은 심리학과 중동지역학이에요. 엄마는 기독교인이고 아빠는 유대인인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07:59:35**

**와르다:** 안녕하세요. 알제리에서 오란대학교를 다니는 와르다라고 합니다. 미국 젊은이들은 종교적, 민족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나요?

**MECH 다니엘:** 와르다 님, 안녕하세요.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다양성을 포용하기 위해서 미국 대학에서는 갖가지 풀뿌리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동 공존의 집은 미국 대학에서는 최초로 생활하면서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이 모델은 내년엔 앤 아머에 있는 미시건대학을 포함한 여러 대학에서도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08:03:51**

**베나마:** 실례지만 종교적, 민족적 차이를 극복한다고 하셨는데, 각자의 종교에게는 안 좋은 일이 아닌가요? 순수한 종교라면 모두 국가 간 공존을 요구하니까, 문제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슬림인 저는 예언자 모하메드(그에게 평화와 축복을)가 자신의 도시(예언자의 도시)에 머무는 동안 한 유대인이 모하메드의 이웃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MECH 달리아:** 안녕하세요. 왜 우리가 각자의 종교를 위해 좋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저는 종교가 다른



사진 제공: © The Star-Ledger All Rights Reserved

중동 공존의 집에서 생활하는 대니얼 조셉스, 에스티 앳츠비, 레일러 할와니, 캐서린 오코너(좌측부터).

사람들과 공존하는 것이 각자의 종교를 위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종교 공동체에는 다른 종교인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공존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교리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교리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베나마 님의 말에 동의해요. 종교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08:08:07**

**에이프릴2:** ‘아하!’ 하고 깨닫게 된 순간이 있나요?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경우 말이에요.

**MECH 대니얼:** 안녕하세요, 에이프릴 님. 날마다 ‘아하!’ 하는 순간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누군가하고 같이 살게 되면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배우는 과정이지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지식의 폭이 넓어집니다. 예를 들면, 중동 공존의 집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저는 무슬림 여자들이 다른 여자들 앞에서 히자브(얼굴가리개)를 벗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첫째 주에 한 학생이 히자브를 벗었을 때 저는 그 학생에게 창피를 주지 않으려고 실제로 도망가 버린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학생이 아무런 문제될 것 없다고 말했지요.

**IRC 카이로:** 달리아 님, 팔레스타인 출신이면서 유대인 학생과 함께 생활하는 게 처음에는 당황스럽지 않았습니까?

**MECH 달리아:** 아니요. 오히려 중동 평화의 집에서 유대인 학생들이랑 함께 생활하는 걸 기대했어요. 함께 생활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중동 공존’을 체험할 수 없겠죠.

**08:12:38**

**에이프릴2:** 공존의 집에 살지 않은 다른 친구들은 어때요? 이따금 찾아오기도 하나요?

**MECH 달리아:** 공존의 집 프로젝트에 영향받은 친구들이 많아요. 갈등 해결 방식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면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고요. 아는 사람들에게 공존의 집 프로젝트에 대해 얘기하면서 무슬림 문화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그리고 종교적인 사람 혹은 중동 사람하고 함께 사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려 줄 수 있었죠.

**08:14:49**

**카이로의 알리 에이드:** 미국에서는 무슬림들이 비무슬림들하고 어떤 방식으로 평화롭게 지냅니까?



사진 제공: © The Star-Ledger All Rights Reserved

중동 공존의 집에서 대화를 나누는 나디아 셰이크(좌측)와 대니얼 조셉스

**MECH 달리아:**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우리 같은 무슬림이 비무슬림들과 평화롭게 지내려면 우리 이슬람교에서 가르치는 관용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이예요. 그렇게 되면 마음을 열고 신앙이 다른 사람들과 사는 것을 받아들여지게 되죠. 신앙이 다른 사람들과 공존하는 무슬림들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자기 신앙에 따라 관용을 베풀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한다고 생각해요.

**08:19:46**

**카이로의 마하:** 새러 님, 문화와 종교가 다른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들려주세요.

**MECH 새러:** 마하 님, 안녕하세요. 공존의 집은 제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문화에 대해 아주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새벽 2시에 방에서 종교와 정치와 삶에 대해 토론하는 모습은 흔한 광경이지요. 지금까지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만나 봤지만,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 물어볼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지내는 게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유대인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에 대해서도 배울 기회가 있는 곳이지요.

**08:21:12**

**IRC 카이로:** 대니얼 님, 안녕하세요. 전 이집트에 사는 샬리라고 해요. 이슬람 문화에 대한 대니얼님의 비전, 그리고 무슬림들이 미국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대니얼 님은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이랑 대화가 잘 되나요?

**MECH 대니얼:** 샬리 님, 안녕하세요. 질문 감사합니다. 솔직히 얘기하자면 전 항상 이슬람 문화에 흠뻑 빠져 있었어요. 아버지는 이라크 유대인이십니다. 조부모님은 이라크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평생 사셨지요. 그분들은 아랍인과 무슬림 이웃들과 공존하면서 사셨어요. 러트거스대학에서 저는 아랍어를 공부했는데, 아주 아름다운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히브리어를 하기 때문에 아랍어를 배우기가 훨씬 쉬웠지요. 무슬림 친구들이 많은데, 오늘날 무슬림들이 어떤 일을 겪는지 그 친구들에게서 들으면 화날 때가 있습니다. 여기 공존의 집에 사는 무슬림 중에서 히자브를 쓰는 대다수가 날마다 차별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특히 좌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공존의 집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슬람 문화, 그리고 무슬림 여인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없애려고 합니다.

**08:44:30**

**JRABADOV:** 무슬림, 유대인, 그리고 기독교인 사이의 차이를 극복하는 데 성공했습니까? 그렇다면 다양한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놓으려고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MECH 달리아:** 안녕하세요. 중동 공존의 집에서 세 종교 사이의 차이를 극복했다고 생각해요.

서로 함께 생활하기로 하면서 우리는 신앙에 관계없이 서로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서로의 배경에 대해 더 많이 배우려고 해요. 공존이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사는 곳 밖으로 전파하고, 대학 내외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보여주려고 해요.

**MECH 사만사:**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마련한 ‘하우스 클래스’는 아주 중요한 활동인데, 거기서 우리는 다양한 문화와 국가의 역사에 대해 배웁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 오늘날의 중동이 됐는지, 그리고 중동의 관습과 전통과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죠. 이따금 우리는 다양한 문화와 철학에서 예상 외의 유사점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갈등을 해결하려면 먼저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활동이에요.

#### **08:53:54**

**IRC 카이로:** 새라 님, 안녕하세요. 아랍 세계에서 미국 출신의 무슬림 지식인이 발휘하는 영향력은 어떤가요?

**MECH 새라:** 개인적으로 저는 아랍 세계에서 미국인 무슬림이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확신합니다. 미국에서 받은 교육과 지식으로 중동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졸업 후에 이집트로 돌아가서 중동 지역의 보건의로 부분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 **09:00:22**

**IRC 카이로:** 현재 무슬림들은 미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나요?

**MECH 새라:** 무슬림들은 현재 미국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이래로 비 무슬림들이 이슬람교를 이해하려는 엄청난 움직임이 있었어요. 이슬람교에 대한 토론과 논쟁이 그렇게 증가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슬람교의 원리가 아주 간단하면서도 평화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무슬림들을 덜 두려워하고, 더욱 관용을 베풀면서 환영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요. 사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슬람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직도 많아요.

히자브를 두르는 무슬림 여학생인 제게도 나쁜 말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사람들이 이슬람교에 대해 여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떠나게 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토론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요.

**IRC 카이로:** 사만사 님, 기독교인으로서 종교가 다른 사람들과 지내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 [콥트 기독교인] 이미지는 어떤가요?

**MECH 사만사:** 우리 가족 절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대하는 일에 익숙하지요. 미국 사회의 기독교에 대해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주의자 혹은 정부에 있는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사람들이 무슬림들을 어떤 틀에 맞추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교에 대해 잘 알수록 이런 일은 덜 생길 거예요.

#### **09:09:42**

**MECH 달리아:** 여러분 모두의 질문,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질문에 대답하는 게 즐거웠어요. 제 답변이 중동 공존의 집

에서의 생활, 그리고 전반적인 미국 생활에 대한 정보가 됐기를 바랍니다.

**MECH 대니얼:** 안녕하세요. 여러분과의 채팅, 즐거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종교와 민족이 다양한 사람들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전 세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노력 부탁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이곳에 존재하고, 오늘날의 글로벌 사회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MECH 새리:** 여러분 모두 건설적인 채팅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메시지와 프로젝트가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MECH 사만사:**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토론으로 공준의 집과 우리가 술신 수범하고자 하는 활동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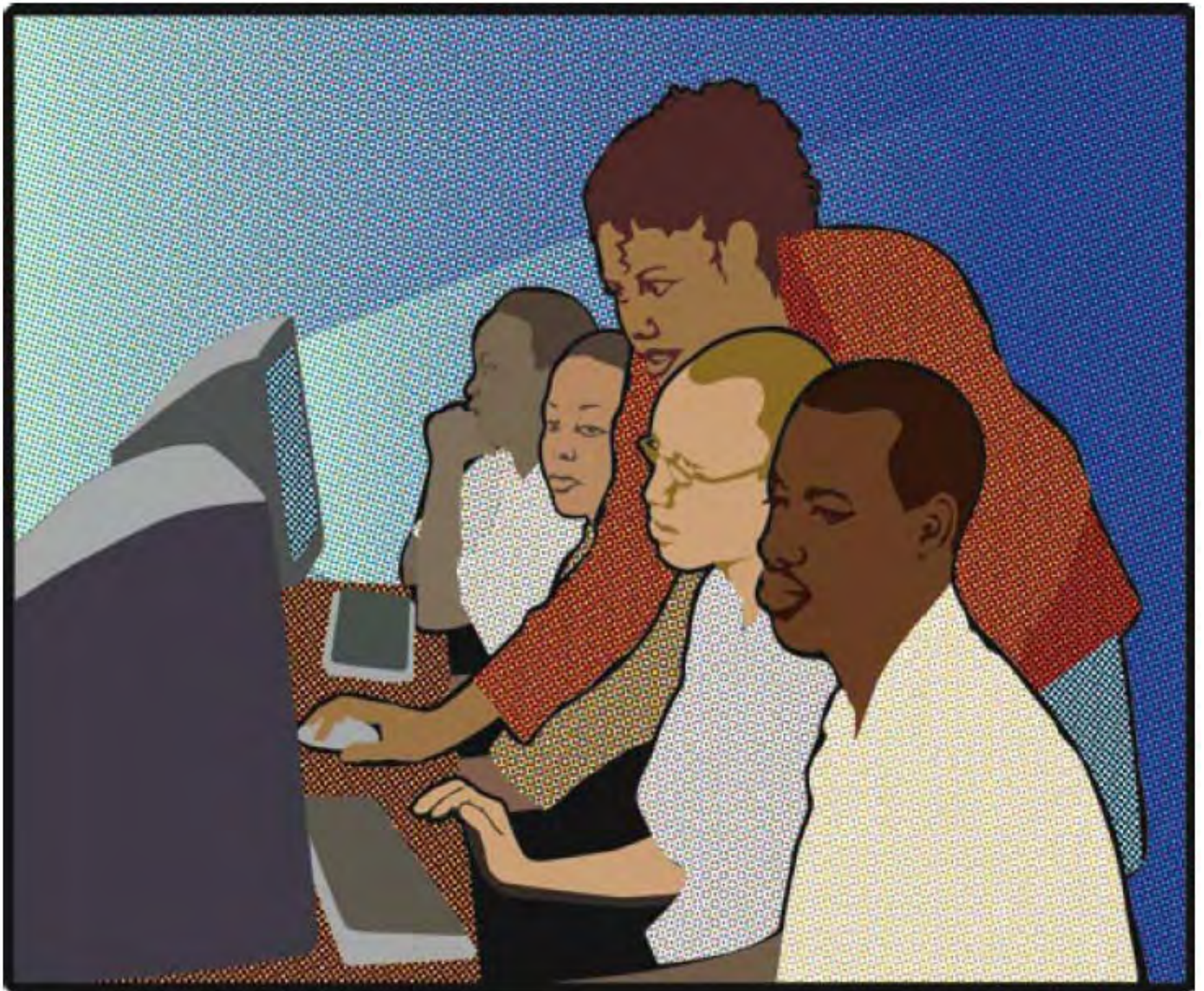
본 웹 채팅의 내용은 미국 정부의 견해나 정책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The screenshot shows a webchat station page from USINFO.STATE.GOV. The main heading is "The Middle East Coexistence House: Women Bridging Religious and Ethnic Divides". Below the heading is a photo of four women sitting around a laptop. The text below the photo reads: "Danielle Josephs, Dalia Gheith, Sara Elnakib and Samantha Shanni". It also includes the date "Wednesday, 4 April 2007" and time "8:00 a.m. EDT (1200 GMT)". A "View Webchat Transcript" link is visible. On the right side, there is a "RELATED ITEMS" section with several article titles. At the bottom, there is a paragraph of text: "Interfaith dialogue and the efforts of young Americans to bridge religious and ethnic differences is the subject of a USINFO webchat focusing on the experiences of students living in a special dormitory at Rutgers University in New Jersey. There, 11 female students of various beliefs — Jewish, Muslim,".

본 기사는 usinfo.stae.gov상에서 진행된 웹 채팅(상단 캡처 화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대화 원본: [http://usinfo.state.gov/usinfo/USINFO/Products/Webchats/coexistence\\_04\\_apr\\_07.html](http://usinfo.state.gov/usinfo/USINFO/Products/Webchats/coexistence_04_apr_07.html).

# 과거의 메아리 속에서 2020년으로 나아가기



**컴퓨터 실력이 뛰어난 미국 젊은이들이 국제교류 프로그램에서 선발되어  
다른 나라 젊은이들의 컴퓨터 학습을 돕고자 르완다로 향했다. 가르침과 배움에 대해서는  
미국 젊은이들이나 르완다 젊은이들이 다를 바 없지만, 그들을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정부가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학과 비정부기구의 후원이 필요하다.**

지금은 디지털 세상이다. 디지털 세상이 아닌 곳을 제외하고는.... 개발도상국들은 아직 정보기술(IT)이 발전되어 있지 않다. 워싱턴 주립대학교 부설 디지털격차해소센터(CBDD)는 이들 국가가 IT라는 고속열차를 잡아 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CBDD에서는 전 세계 보통 사람들이 현대적 IT 기술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있어서 IT 시대에 성장한 젊은이들보다 적합한 이들이 어디에 있겠는가?

2005년부터 CBDD는 젊은이들을 르완다로 파견해 그곳 젊은이들이 IT 노하우를 신속하게 익히도록 지원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CBDD는 르완다가 ‘비전 2020’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비전 2020’이란 IT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르완다를 아프리카의 정보 허브로 변모시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이다.

CBDD의 Youth 4 BIT(비즈니스 정보기술) 이니셔티브는 아프리카와 미국의 중고등학생들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원한다. 커리큘럼은 단순한 컴퓨터 게임을 넘어선다. 컴퓨터 조립 및 업그레이드, 하드디스크 유지보수, 문제해결 등의 과정이 포함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르완다 학생들은 또한 진단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운영체제에 대해서도 배운다.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대단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아프리카에서 증가 추세에 있는 IT 인력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또한 졸업생들은 자신의 지식을 다른 학생들에게 전파한다. 르완다 현지의 학교와 청소년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청소년들의 IT 기술 향상에 일조한다.

이렇듯 미래를 향한 열망과 투자가 이루어지는 르완다는 1994년 투치족과 후투족 간 인종학살의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은 나라다. 유혈이 난자한 권력 투쟁으로 인해 80만 명이 사망하고 2백만 명이 국경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다. 르완다는 화해를 향해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고, 국가 IT 역량의 제고라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야심찬 어젠다 중 하나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Youth 4 BIT 기술 트레이너로 르완다에 파견된 미국 젊은이들에게는 비극적인 과거의 메아리가 계속해서 귓가를 맴돌았다. 이어지는 기사는 이들 젊은이들의 이야기다. 22살의 브라이언 뉴먼은 워싱턴 주 렌턴 출신으로, 워싱턴 주립대학교에서 정보시스템을 전공하고 있다. 그는 점심 식사 자리에서의 가벼운 대화가 어떻게 상대방을 더욱 잘 이해하게 만들었는지를 들려줄 것이다. 이어서 21살의 리 로머라임은 워싱턴 주 파스코 출신으로, 최근 푸젯 사운드대학교를 졸업했다. 그녀는 추모 행진을 통해 어떻게 용기를 배우게 되었는지를 회상한다. ■

## 브라이언: 르완다에서의 점심



사진 제공: 브라이언 뉴먼

르완다 학생들과 함께 포즈를 취한 리 로머라임(우측에서 두 번째)과 브라이언 뉴먼(맨 우측).

인종학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당황스러웠다. 나는 그들의 나라를 방문해서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젊은이들과 대화하며 웃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나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제대로 헤아릴 수 없다.

르완다에 가기 전에는 문화가 아주 다른 학생들과 친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내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들을 겪으며 살아왔다.

그러나 결국 나는 그들이 사실 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교훈을 얻었다. 여행이 끝나갈 무렵, 나는 지구 반대편에서 나와 아주 비슷한 친구들을 새로 사귀게 됐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

*\*FAWE는 Youth 4 BIT에 참여하는 르완다 학교 4개교 중 하나이다. 그 밖의 3개교는 아프레드 은테라, 카가라마, 그리고 리 세 뒤 키갈리이다.*

르완다 여행을 회상할 때면 내가 컴퓨터를 가르쳤던 학생들과 점심을 먹던 모습이 자주 떠오른다. 점심시간은 자신의 가족과 나라와 문화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자리였다.

그렇게 심한 고통을 겪은 나라의 학생들이 유쾌하고 친근하게 얘기하던 모습을 떠올리면 당혹스럽다.

내가 놀란 것은 미국이나 유럽의 대학으로 가기를 바라는 학생 대다수가 졸업 후 고국으로 돌아와 국가 재건을 도우려고 한다는 점이었다. 르완다에서 우리와 함께 했던 여러 학생들은 대학 전공을 제대로 선택했는지를 고민했다. 대학에 가기 전의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었던 것이다. 가족에 대한 그들의 얘기는 우리 가족 얘기를 듣는 듯했다.

그러나 이따금 대화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도 했다.

한번은 FAWE\*(아프리카 여성교육가 포럼)에서 어떤 학생과 함께 다양한 언어에 관한 대화를 했는데, 나는 그녀의 부모님이 어떤 언어를 쓰는지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인종학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지금은 다른 가족과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그녀는 별로 이상하게 없다는 투였다. 그녀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르완다에서는 그런 일이 흔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에 나는 경악했다.



## 리: 추모 행진을 하면서



사진 제공: 브라이언 뉴먼

2006년 추모행사에서 르완다 키갈리 인종학살 기념관을 향해 행진하는 사람들.

장마철에는 르완다의 도로 곳곳에 물이 범람한다. 진흙투성이 상태였다가 건조되면 울퉁불퉁하고 바퀴 자국이 난 도로로 변한다. 토요일 이른 아침, 우리는 차를 타고 이렇듯 울퉁불퉁한 도로를 따라 한 작은 교회로 향했다. 키갈리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인종학살 추모 행진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르완다 친구의 얘기로는 그 교회가 피난민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던 곳 중 하나였는데, 사람들이 살해됐다는 것이다.

죽음의 기억이 그곳에 남아 있었지만, 그럼에도 삶은 꽃을 피웠다. 학생 모두가 도착하자 아주 놀라운 광경이 연출됐다. 어떤 학생들은 교복을 입었고, 어떤 학생들은 마하트마 간디, 넬슨 만델라, 마틴 루터 킹 등 자신의 영웅 이름이 새겨진 셔츠 차림이었다. 일부는 평범한 옷차림이었는데, 어디서든

찾을 수 있는 학생들처럼 보였다.

자리에 모인 학생들 가운데 피부가 하얀 나는 끊임없는 관심의 대상이었다. 나는 실제로 튀어 보였다. 그래서 이방인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르완다 친구들이 나를 데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그러한 느낌은 사라졌다. 그곳에서 나는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었다. 나는 그곳에 참여하기 위해 있었다. 사람들은 나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달리했다. 이제는 쳐다보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 교류하기 위한 사람으로 나를 대했다.

추모행진은 국립 행진악단의 광과례로 시작됐다. 토요일 아침 우리는 키갈리의 거리를 따라 상당한 장관을 이루며 걸었다. 우리는 인종학살 기념관을 향해 나아갔다. 도중에 나는 배경과 얼굴과 미소가 다른 수많은 학생들과 만났다. 우리는 영화, 음악, 르완다의 교육제도, 그리고 각자의 희망에 대해 얘기했다. 미국 워싱턴에서 친구들과 여러 번 나누었던 대화와 비슷했다.

기념관에 이르자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우리는 새로 발견된 시신이 안치된 묘 주위에 모였다. 도시 재건 사업이 진행되면서 더 많은 인종학살 희생자들의 시신이 발굴되었고, 그들을 올바르게 안장하는 것이 재건 사업의 일부가 됐다. 묘지 너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살해된 사회에서 성장한다는 게 어떤 것일지 상상해 보려고 했다. 인종학살이 자행될 당시 많은 학생이 부모와 함께 해외로 떠났다. 남은 학생들은 부모 중 한쪽 혹은 모두, 그리고 수많은 형제자매와 친구들을 잃었다.

이렇게 똑똑하고 재능있고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일을 겪은 것이다. 토요일 아침, 그들은 여전히 당당하게 서 있다. 나는 그들의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고 친구로 여겨지게 된 것을 영광으로 여겼다. ■

---

브라이언 뉴먼과 킬라 로머라이프의 수기는 미국 정부의 견해나 정책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편집자 주: CBDD에서는 브라이언과 리의 2006년 르완다 여행 블로그(<http://cbdd.typepad.com/bit/>)를 개설했다. 아울러 브라이언의 포토 블로그(<http://picasaweb.google.com/achievinglacker/Rwanda>)에서도 르완다 여행 당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 Inspire, Inform, Involve



사진 제공: TakingITGlobal.org

## 온라인 공동체를 통해 더 넓은 세상에 도달하는 젊은이들

사진이나 시를 전시하려는 장소가 필요할지 모른다. 유엔이나 미국의 최신 뉴스에 대해 얘기하고 싶을지 모른다. 공동체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동료들을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한 자문이 필요할지 모른다.

TakingITGlobal.org(TIG)라는 웹페이지로 들어가보자. 젊은이들이 만들어 운영하는 이 웹사이트는 200여 개국 출신의 청소년들이 가상 국제교류활동을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로 성장했다. 이곳 네티즌들은 오프라인 만남 만큼이나 현실적이고 의미 있다고 말한다.

TIG에서 진행되는 대화는 단순한 잡담의 수준을 넘는다. 이 커뮤니티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중대 사안—유엔 새천년개발목표, 디지털 격차, HIV/에이즈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지향한다.

또한 TIG는 전 세계 디지털 격차를 메우고, 정보기술(IT)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이러한 목표를 다루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디지털 격차에 대한 토론과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www.digitaldivide.net](http://www.digitaldivide.net)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Inspire, Inform, Involve’(고무하고, 알리고, 참여하자)라는 슬로건으로 2002년 TIG를 개설한 두 캐나다 젊은이 중 하나인 마이클 퍼딕의 설명이다.

“글로벌 차원의 문제들을 다루는 포털이나 전 세계 동료 네티즌들과 대화할 기회를 찾는 젊은이들에게 이 사이트는 훌륭한 출발점이 된다.” 워싱턴 DC 소재 아메리칸대학교 사회미디어센터가 청소년 인터넷 사이트에 관해 작성한 보고서 내용의 일부이다.

TIG는 젊은이들이 자기 견해를 표현하고 주위 세상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세계 최대의 온라인 청소년 예술작품 모음집과 활기로 넘치는 온라인 e매거진이 포함된다. 전 세계 학교에서도 TIG를 교육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TIGed.org에 수록된 교사용 도구와 자료를 활용하면 글로벌 차원의 쌍방향 교육 활동이 가능하다.

2007년 회원들을 상대로 실시된 조사에서 TIG는 회원들이 꿈 이상의 것을 교류하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IT 기술을 익히고,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발견하며, 네트워크 및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각자의 지역사회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이제 나는 전 세계에 친구들이 있다. 나를 염려해주고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친구들이다. 실제로 대면한 적도 없고, 그림과 글을 제외하고는 나에 대해 알지 못하더라도 말이다. 어떤 점에서는 그

친구들이 우리 가족보다 나를 더 잘 안다.”

-야라 카셈(이집트)

“세계 여러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나는 TIG를 통해 우리나라의 관점만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다.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강력한 나라이다. TIG를 통해 나는 미국의 영향을 받는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본 미국의 영향력을 이해하게 됐다. 또한 나는 전 세계의 멋진 사람들과 알게 됐다.

-트레버 켈로그(미국)

“TIG를 통해 나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변화가 가능하고 비전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배웠다. 젊은이들이 자신의

목표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다른 젊은이들이 도울 만한 범위가 대단히 넓다는 사실이 항상 놀라울 따름이다.”

-림 누르(튀니지)

“TIG는 지리적, 사회문화적, 종교적, 경제적, 정치적 경계를 넘어 친구들의 범위를 넓혀주었다. TIG의 회원으로서 나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초월하여 생각하게 됐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의 문화를 더 잘 이해하게 됐다.”

-모스 플로레스(필리핀) ■

본 기사의 내용은 미국 정부의 견해나 정책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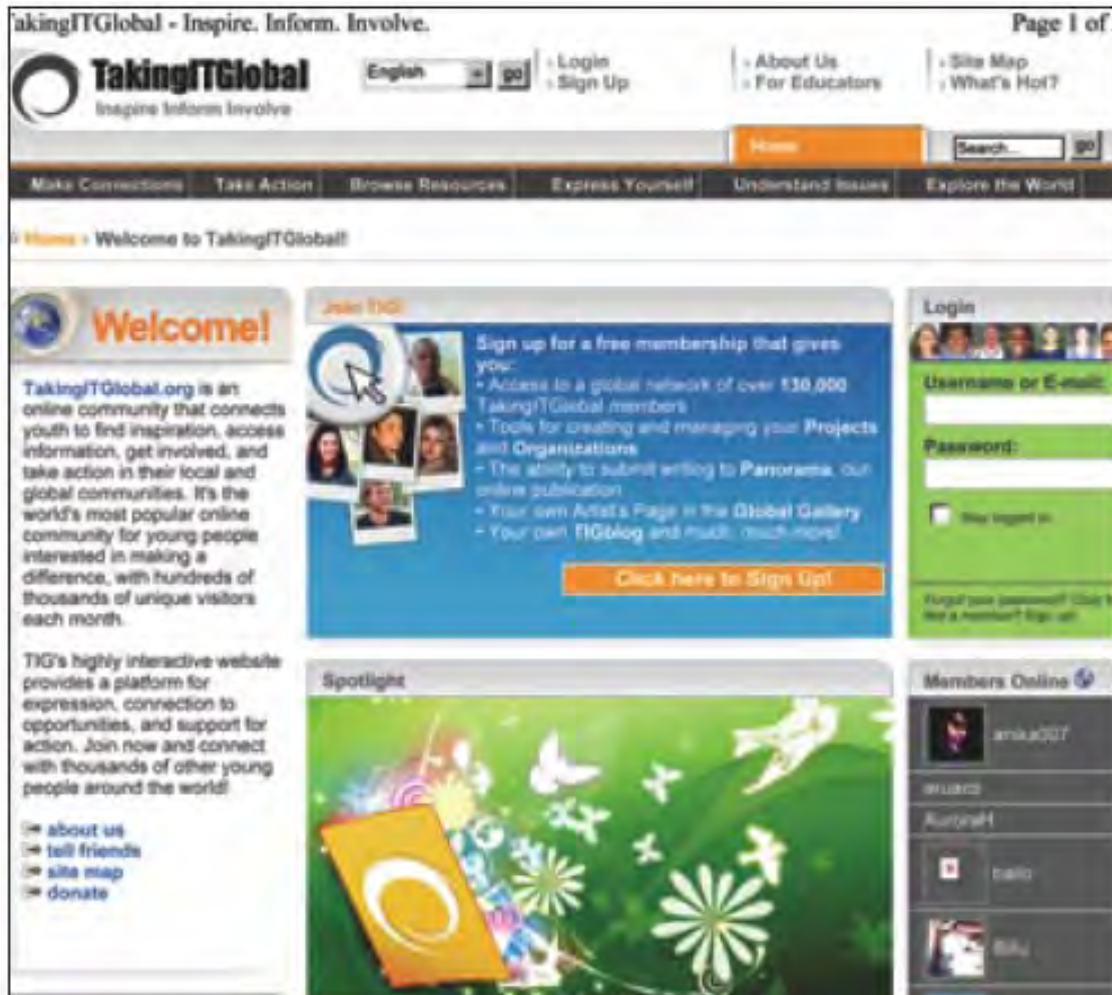


사진 제공: TakingITGlobal.org

TakingITGlobal 웹사이트는 토론, 표현 및 실천을 위한 자료를 12개 언어로 제공한다.

# 온라인으로 만나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마이트레이 도시

*한 인도 소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면서 광활한 여행길에 올랐다.*

1998년 16살이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인도를 떠나 미국 보스턴 주 메사추세츠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이 후원하는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사진 제공: 마이트레이 도시

1998년 MIT 청소년 정상회담에 참가한

마이트레이 도시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회상해보면 MIT 청소년 정상회담 참가라는 기회가 내 삶을 바꾸었고, 정보기술(IT), 온라인 커뮤니티, 그리고 해외여행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발견하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청소년 정상회담에는 54개국에서 온 청소년 100명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 아동들의 문제를 과학기술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토론했다. 우리는 6개월 동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들 사안에 대해 토론했다.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게 된 첫 번째 경험이었다.

청소년 정상회담이 끝나자 나는 TakingITGlobal(TIG)에서 만든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내가 알던 세상과 다른, 대단히 새롭고 흥미진진한 커뮤니티였다. 나는 그곳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내가 속한 지역사회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고무해 주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졸업하는 것 말고도 인생에는 할 일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물론 우리는 이따금 불가능한 프로젝트에 도전하는 어린 이상주의자들이었지만, 우리의 미약한

힘으로 지역사회에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TIG는 광활한 커뮤니티였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로 결집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인스턴트 메시지에서 열릴 이사회 회의를 위해 새벽 2시에 일어났던 기억이 생생하다. 시간대가 다른 사람들이 회의를 열려면 누군가는 한밤중에 깨어 있어야 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던 프로젝트 하나가 실패하자 여러 날 동안 울면서 우울해 하던 기억이 난다. 생애 최초로 온라인으로 친구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친구들이 그들의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지켜보고, 나 역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깨달으면서 고무받았던 기억이 떠오른다.

지난 9년 동안 내가 만든 온라인 커뮤니티는 오늘날까지도 개인적인 삶과 경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커뮤니티를 통해 나는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했고, 생각의 범위를 넓혔으며, 무엇보다도 내가 속한 지역사회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고무받았다. 덕분에 나는 2007년 6월 메릴랜드 예술대학 대학원에서 지역사회예술 석사과정을 시작했다. 이 학위를 취득함으로써 예술이라는 매체를 통해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방법을 더욱 잘 이해하고 싶다. 나는 사회운동과 예술에 대한 열정을 하나로 녹여 예술가로서의 내 욕구를 충족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될, 독특하고 도전적인 경력을 쌓고 싶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일원이 될 기회가 생겨서, 그리고 그 기회가 문 앞에 왔을 때 포착한 것에 대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다.

나는 이따금 궁금해 한다. 청소년 정상회담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내 삶은 어땠을까 하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

마이트레이는 23살이다. 그녀는 2006년 웨스트 버지니아 주 애신스에 있는 콩코드대학교 학부를 졸업한 후, 워싱턴 DC 소재 여성클럽총연맹(General Federation of Women's Clubs)에서 그래픽 디자이너 겸 퍼블리케이션 어시스턴트로 근무하고 있다.

본 기사의 내용은 미국 정부의 견해나 정책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 제공: 마이클 마이어스/OxfamA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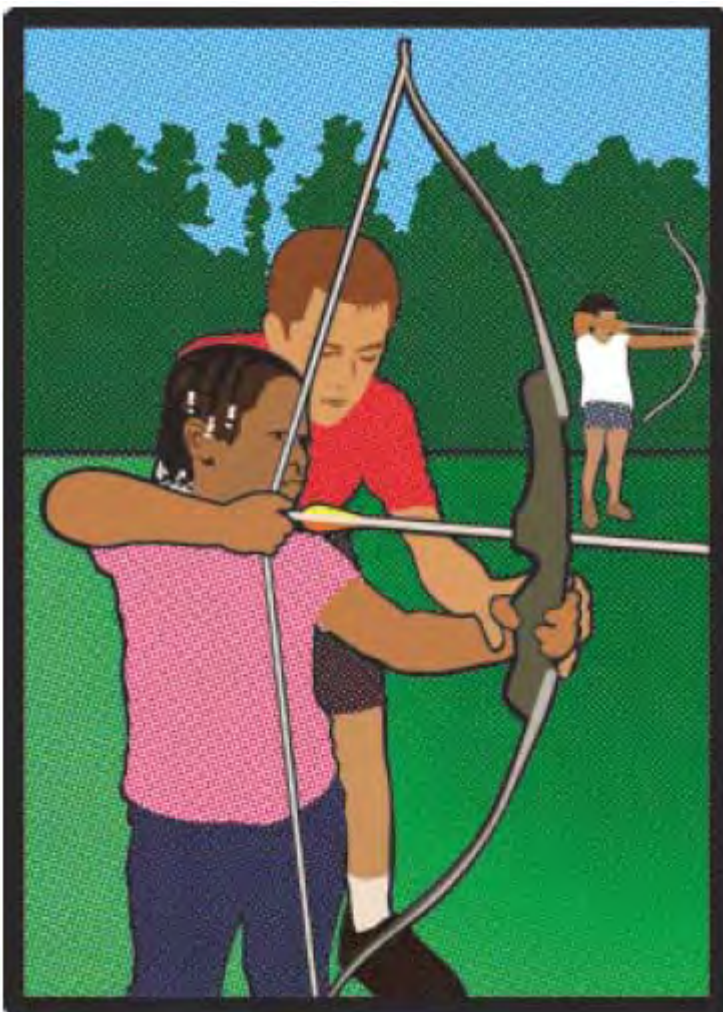
TIG 회원들은 온라인상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전 세계 빈곤·기아 퇴치와 같은 주요 사안의 해결책을 모색한다. 사진은 호주 시드니에 모인 젊은 사회운동가들.

## 국제관계의 개인적 체험

살린 포터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세계를 보는 시야를 넓히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게 한다. 그러한 경험을 할 기회가 계속 늘고 있다. 살린 포터는 <e저널 USA>의 편집실장이다.*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라는 키워드를 치면 대략 280만 건이나 되는 결과가 표시된다. 세계 다른 지역을 보고 싶은 청소년들은 광범위한 학습·노동·자원봉사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의 세계는 광대하다. 관련 단체의 수를 모두 열거하기는 불가능하다. 매년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들고 나는지 파악하기는 더욱 어렵다. 국제교류 활동이 왜 가치 있는 일인지에 대한 간결한 답을 듣는 편이 더욱 쉽다.

*교육 교류 활동은 국가를 사람으로 바꾼다. 어떠한 의사소통 형태도 이러한 활동 만큼 국제관계의 인간화에 기여하지는 못한다.*

미국정부가 후원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아버지라 불릴 만한 고(故) J. 윌리엄 폴브라이트 상원의원의 말이다. 국제교류 활동의 장점에 대한 폴브라이트의 생각은 여러 단체가 지향하는 목표와 유사하다.

시행 60년이 넘는 폴브라이트 장학금 프로그램은 아칸소 출신 상원의원이었던 고인이 1946년 관련 법률을 제안하면서 확립되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실시된 이래로 13만 8000명의 외국인 학자, 교사, 학생들이 국제관계를 개인적으로 체험하고자 미국에 왔고, 8만2000명의 미국인이 폴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해외로 갔다.



사진 제공: 에드 해리슨/로터리 인터내셔널

캘리포니아 주와 네바다 주의 경계에 있는 타호 호수로 스키 여행을 온 로터리 교환학생들. 얼굴에 자기 나라의 국기 모양으로 페인팅을 했다.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은 미국 정부의 대표적인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간주되지만, 그 밖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다. 국무부 교육문화국(ECA)이 후원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에는 매년 3만 명 정도가 참가하며, 지난 50년 동안 이들 프로그램을 통해 100만 명이 국제적인 체험을 했다.

정부 후원 프로그램들은 국제교류 활동이라는 우주에서 몇 개의 별에 지나지 않는다. ECA는 각자에게 알맞은 프로그램을 검색할 수 있는 훌륭한 데이터베이스 (<http://exchanges.state.gov/jexchanges/>)를 제공한다. 이 검색 사이트를 통해 중고등학생, 대학생, 교사, 연구원 등 자가 원하는 프로그램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민간 후원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목표는 주로 단과대학이나 종합대학이다. 교환학생들은 학술세계에서 일종의 외교관 역할을 한다. 작년에 국무부는 미국에 오려는 학생들과 교환방문자들에게 59만1000건의 비자를 발급했다. 한편 20만 여 명의 미국 학생들이 해외 유학길에 올랐다.

대학 진학 연령보다 어린 청소년들도 유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만, 정확하고 포괄적인 통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단체들을 관리, 감독하는 기구인 CSIET에서는 매년 3만 명 정도의 중고등학생들이 미국에 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CSIET는 이러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학생들은 다른 문화에 대해 직접적으로 배운다. 그럼으로써 평생토록 지속되는 우정을 쌓는다. 학생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다른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중고등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1949년 이래로 미국 대민외교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들 프로그램은 외국 학생들에게 미국인 호스트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미국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비단 학생 자신뿐만 아니라 고국에 있는 그들의 부모, 친구, 그리고 교사들도 변모하게 된다. 이들 학생과 접하는 호스트 가정, 동료 학생 및 교사들에게도 도움이 된다.(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본 저널 ‘정보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섹션에 수록되어 있다.)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일이 중요하다. 미국은 그러한 기회를 청소년들에게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착수했다. 2006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발표한 국가안보언어계획(NSLI)은 미국정부가 가장 최근에 신설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이다. NSLI는 미국 청소년들에게 ‘중점언어(critical-need language)’인 아랍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과정에 투자하고 있다.

2006년 11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국제교육주간(International Education Week)에서 NSLI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치하했다. “아랍어, 중국어, 러시아어, 힌디어, 그리고 파시어와 같은 중점언어의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기회가 많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며, 미국이 다른 문화를 존중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NSLI의 ‘외국어 여름집중과정’은 미국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두 번째 시즌을 운영 중이다. ECA에 따르면 해당 언어 사용 국가에 특수 설립된 기관의 외국어 집중과정에 등록된 학생 수가 대략 500명이라고 한 한편 그 밖의 미국 대학생들은 풀브라이트 장학금과 길 장학금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서 외국어를 공부하고 다. 또한 외국의 젊은 교사들이 미국에 와서 풀브라이조 교 자격으로 미국 대학에서 모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NSLI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활동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중고등학생들이 러시아, 중국, 터키, 인도 및 아랍어권 국가에서 한 학기 또는 1년 동안 해당 외국어를 배우는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ECA가 관리하는 또 다른 국제교류 프로그램 범주에서는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여 대학 등에 진학한 학생들에게 여름방학 동안 해외에서 일하고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공인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만 제공되는 여름 취업 프로그램에서는 청소년들을 리조트, 호텔, 식당, 놀이공원 등의 비숙련직에 배치한다. 건축, 연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전자 분야의 기업에서 진행되는 여름 인턴십도 허용된다. 이들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http://exchanges.state.gov/education/jexchanges/about.htm#background>.

워싱턴에 위치한 한 컨설팅 회사가 최근 실시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향후 국제교류 활동에서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대세를 이룰지도 모른다고 한다. 일부 미국 대학생들은 봄방학을 해변이나 스키장에서 한가로이 보내는 것보다 다른 나라에서 교육·개발 활동에 봉사하는 편을 선택한다. 이러한 기회를 추구하는 학생들은 국제 자원봉사자

*학생들은 다른 문화에 대해 직접적으로 배운다.  
그럼으로써 평생토록 지속되는 우정을 쌓는다.  
학생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다른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프로그램협회(International Volunteer Programs Association)[<http://www.volunteerinternational.org>],

브레이크 어웨이(Break Away)

[<http://alternativebreaks.org/8components.a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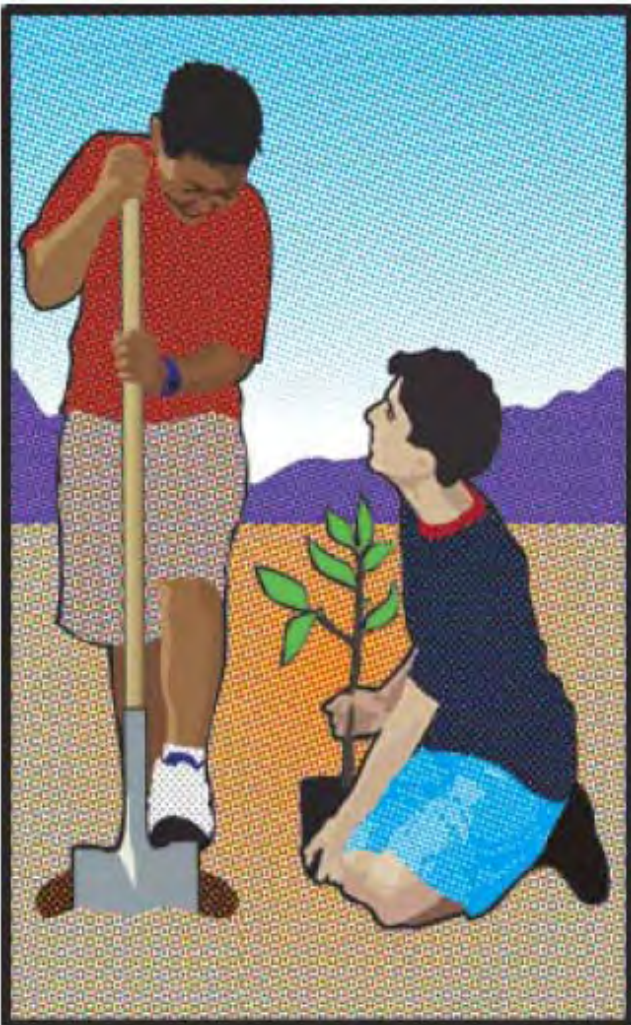
고 어브로드(Go Abroad)[<http://www.goabroad.com>] 등 다양한 단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

미국 정부는 타 기관 및 조직에서 제공한 자료의 내용과 이용 가능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모든 인터넷 링크는 2007년 7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까지의 기사를 읽으면서 이제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른다. 본지에서는 독자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량의 정보를 취합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 유형을 조사하는 작업이다. 자신에게 꼭 맞는 프로그램을 찾는 과정을 돕고자, 이어지는 기사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일단 프로그램을 선택했으면, 해당 프로그램의 스폰서들이 학생 및 교환방문자 정보시스템(SEVIS) 등록용 문서를 발급해 줄 것이다. SEVIS는 학교 및 기타 국제교류 프로그램 스폰서들로 하여금 미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소재에 관한 정보를 미 국토안보부에 제공하도록 하는 인터넷 기반형 시스템이다. 프로그램 스폰서는 지원자가 이들 절차를 수월하게 밟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안내한다.

SEVIS 문서를 확보했다면 현지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행 비자를 발급받을 준비가 된 셈이다. ‘비자(VISA)’란 외국인이 미국 입국심사대를 통과하고 미국 이민관에 입국 허가를 요청하는 데 필요한 문서로서, 미국 대사관을 통해 발급된다. 미국은 여러 유형의 여행자, 기업인, 관광객 및 공연가들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비이민 비자를 발급한다. 다음은 학생들에게 발급되는 유형들이다.

- F 비자(학생 비자): 교육기관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통상적으로 발급되는 유형이다. 공인된 미국 대학 또는 영어학원에 다니고자 하는 사람들이 발급받는다.

참조: [http://travel.state.gov/visa/temp/types/types\\_1268](http://travel.state.gov/visa/temp/types/types_1268)

- J 비자(교환방문자 비자): 교환방문자 프로그램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이다. J 비자는 특히 교육·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참조: [http://travel.state.gov/visa/temp/types/types\\_1267](http://travel.state.gov/visa/temp/types/types_1267)

- M 비자(학생 비자): 미국 교육기관에서 비정규과정을 거치거나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이다. 참조: [http://travel.state.gov/visa/temp/types/types\\_1268](http://travel.state.gov/visa/temp/types/types_1268) ■

# 정보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사진 제공: American Jewish Society for Service

일부 여름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지역이나 재난 피해 지역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할 청소년들을 모집한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감을 잡고 싶다면, 자신에게 알맞은 프로그램을 조사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좋은 곳들이 있다.

첫 번째는 미 국무부 교육문화국(ECA)에서 교환학생이 되려는 학생들을 위해 간행한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면 (If You Want to Study in the United States)> 시리즈이다. 4권으로 구성된 이 간행물은 학부 유학, 대학원 및 전문학교 유학 및 연구활동, 단기 유학, 영어 프로그램, 원격 교육, 그리고 인가(accreditation) 관련 정보를 다루고 있다. 또한 미국 생활 및 유학에 관한 실용적인 정보도 다수 수록하고 있다. 이들 간행물 대부분은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도 발간되어 있다.

[<http://educationusa.state.gov/pubs.htm>]

미국 교육부 웹사이트인 미국 교육정보네트워크(U.S. Network for Education Information)는 고등학교, 대학교 및 대학원 수준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http://www.ed.gov/about/offices/list/ous/international/usnei/us/edlite-study-us.html>]

미 국무부 ECA는 170개국 450여 개의 자문·정보 센터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있다. 이들 교육자문센터(Educational Advising Center)는 “미국에서의 교육기회에 대한 정확하고 포괄적·객관적인 정보와, 이들 기회에 가장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적시에 안내함으로써 미국의 고등교육을 전 세계적으로 적극 진흥한다.” 센터 웹사이트에는 인가, 학교 찾기, 비자, 재정지원, 풀브라이트 장학금, 구체적인 ECA 프로그램 등에 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http://educationusa.state.gov/centers/>]

이어지는 단락부터는 국제교류 프로그램 및 유학 프로그램에 대한 개요를 다음과 같은 4대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시한다. (1) 중고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2)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위한 프로그램, (3) 학생 및 전문가를 위한 프로그램, (4) 영어학습 프로그램 및 인턴십. 이들 프로그램 목록은 활용 가능한 수많은 프로그램 중 일부에 불과하므로,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출발점 역할만 할 따름이다.

## 중고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AFS 국제 문화교류 프로그램:** AFS는 13세~18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학기 또는 1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아메리칸 필드서비스(American Field Service)는 가장 역사가 오래된 문화교류기구 중 하나로, 매년 1만1000여 명의 학생, 청소년과 교사들이 참여한다.

[[http://www.afs.org/afs\\_or/home](http://www.afs.org/afs_or/home)]



### 온라인 비디오

#### 체험학습

#### 월드 러닝 비디오

<http://usinfo.state.gov/journals/itsv/0707/ijse/ijse0707.htm>

월드 러닝(World Learning)은 미국에 본부를 두고 세계 77개국에서 활동 중인 기구로서, 지난 75년간 10만 명이상이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역사를 자랑한다. 월드 러닝 동영상에 출연한 학생들의 설명처럼, 월드 러닝의 접근법은 경험을 통한 학습을 강조한다.

(사용 허가를 받음)

월드 러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orldlearning.org>에서 찾을 수 있다.

AFS와 산하 해외 사무소에서는 청소년 교환학생(YES) 프로그램에 참여할 중고등학생들을 브루나이, 이집트, 가나,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및 터키에서 모집한다. [<http://www.yesprograms.org/>]

#### 미국 국제교육협의회(American Councils for International Education):

국제교육협의회는 공공 및 민간 후원단체들을 대표하여 다양한 문화교류, 해외유학 및 연구조사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이들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공개적이고 재능에 바탕을 둔 경쟁을 통과해야 한다. 이들 프로그램은 유라시아, 동남부 유럽 및 남아시아와 미국 간 상호이해를 촉진하는 활동을 한다.

국제교육협의회는 미래 지도자 국제교류(FLEX) 프로그램에 참여할 중고등학생들을 구소련 공화국들에서 모집하고, 청소년 교환학생(YES) 프로그램에 참여할 중고등학생들을 아프가니스탄에서 모집한다.

[<http://www.americancouncils.org/programList.php>]

**AYUSA 인터내셔널:** AYUSA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차원의 학습과 리더십을 진흥하는 유수의 비영리 기구이다. 1980년 이래로 AYUSA는 4만 여명의 고등학생과 호스트 가족에게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국제적 우호관계의 구축에 공헌했다.

AYUSA 컨소시엄은 국제적인 파트너 기구들을 통해 청

소년 교환학생(YES) 프로그램에 참여할 중고등학생들을 알제리, 바레인,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가자, 이라크, 이스라엘(아랍인 지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말리, 모로코, 오만, 파키스탄, 카타르, 세네갈, 시리아, 튀니지, 요르단 강 서안지구 및 예멘에서 모집한다.

[<http://www.ayusa.org/about/grants?grant=yes>]

#### 국제교육교류협의회(CIEE):

CIEE에서는 10개월 또는 5개월 단위의 미국 고등학교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5세~18세 학생들이 호스트 가정에 머물면서 학교를 다니는 프로그램이다.

[[http://www.ciee.org/representatives/opportunities/usa\\_hs/index.asp](http://www.ciee.org/representatives/opportunities/usa_hs/index.asp)]

#### 문화 홈스테이 인터내셔널(Cultural Homestay

**International):** 40여 개국 출신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단체 홈스테이, 고등학교 유학, 오페어, 노동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단체이다.

[<http://www.chinet.org/>]

#### 청소년 지구촌(Global Youth Village):

98개국 출신의 13세~18세 청소년들이 여가활동을 하면서 '글로벌 시민의식을 체험'하는 여름캠프 국제교류 프로그램이다.

[<http://www.globalyouthvillage.org/>]

#### 아이오와 국제 서비스 리소스(IRIS):

IRIS는 1993년에 창립된 비영리조직으로 아이오와 주 에이벤스에 있다. IRIS는 '시골 이니셔티브(rural initiative)'를 통해 국제 교육, 개발 및 평화의 진흥을 사명으로 한다. 이 단체는 아프리카, 중부 유럽 및 동유럽, 아시아 등지의 학생, 언론인, 기업인, 교육자, 정부 지도자 등을 아이오와로 초청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이오와에 머무는 동안 참가자들은 이 지역 가정에 머물면서 학교를 다니거나 기업 인턴 생활을 하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한다.

IRIS는 청소년 교환학생(YES) 프로그램에 참여할 중고등학생들을 나이지리아와 탄자니아에서 모집한다.

[<http://www.iris-center.org/CurrentProjects.htm>]

**퍼시픽 국제교류(PIE) 프로그램:** PIE는 15세~18세 학생들에게 반년 또는 1년 단위 중고등학교 유학 및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http://www.pieusa.org/homestay\\_exchange.asp](http://www.pieusa.org/homestay_exchange.asp)]

**로터리 청소년 국제교류(Rotary Youth Exchange) 프로그램:** 15세~19세 중고등학생들에게 홈스테이·유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조직이다.

[[http://www.rotary.org/programs/youth\\_ex/index.html](http://www.rotary.org/programs/youth_ex/index.html)]

###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위한 프로그램

**학부 스터디(Undergraduate Study):** 이 웹사이트는 국무부 ECA가 발간한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면(If You Want to Study in the United States)> 시리즈 4권 중 첫 번째 권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축되었다. 미국 학사 학위 및 관련 학위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전문학교 및 직업학교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http://educationusa.state.gov/undergrad.htm>]

**에듀패스! 미국 유학 가이드(EduPass! The Smart Student Guide to Studying in the USA):** 에듀패스는 교환학생 자격으로 미국에 가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정보 교환소이다. 대학 입학, 여권 및 비자, 여행, 예산, 문화적 충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http://www.edupass.org>]

**국제 교육 서비스(IES):** IES는 학생들이 적절한 미국 대학을 찾도록 돕는다. 이 사이트에는 해외 학생 유치에 관심 있는 대학의 목록과 교육 상담가들을 위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http://www.ies-ed.com>]

**대학원생을 위한 프로그램:** 국무부 ECA 간행물의 대학원 유학편에는 미국에서 석사, 박사 및 박사후 과정에 지원하는 방법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미국에서 학업이나 전문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전문직업인들을 위해 인증 및 면



사진 제공: AP Images/스티브 매뉴얼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에서 호스트 부모 크리스티나와 하워드 필롯(좌측)이 아들 칼과 태국 교환학생 차르트라함 차레온왕(우측)의 숙제를 도와주고 있다.

허 취득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http://educationusa.state.gov/graduate.htm>]

### 학생 및 전문직업인을 위한 프로그램

**미국 교육·언어연구 협의회(ACCELS):** ACCELS는 유라시아, 동남부 유럽 및 남아시아와 미국 간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문화교류, 해외유학, 연구조사 프로그램 등을 관리하는 기구이다.

[<http://www.americancouncils.org/programList.php>]

**미국·중동 교육훈련서비스(AMIDEAST):** AMIDEAST는 중동 10개국 출신의 남녀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대학교 및 대학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다수 제공한다.

[[http://www.amideast.org/programs\\_services/exchange\\_programs/default.htm](http://www.amideast.org/programs_services/exchange_programs/default.htm)]

**미 국무부 교육문화국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국제 교환학생이 되고자 하는 청소년들은 이 웹사이트를 통해 지역별, 프로그램 유형별, 기간별 국제교류 프로그램들을 검색할 수 있다.

[<http://www.exchanges.state.gov/education/citizens/students/programs/>]

**세계교환학생재단(WISE):** WISE는 아시아, 유럽, 남아메리카 등지의 학생들을 위한 유학 및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한다.

[<http://wise.wisefoundation.com>]

**국제교육인스티튜트(IEE):** IEE의 프로그램 포털 사이트는 매년 2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316개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IEE는 학생, 학자, 교육자, 대학 상담인원 등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국제교육 관련 연구조사를 진행한다. 또한 IEE는 대학원 진학, 고급 연구 및 기타 활동에 착수하려는 학생들과 전문직업인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국무성이 후원하는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의 관리 기관이다.

[[http://www.iie.org/Content/NavigationMenu/Programs\\_Portal/Browse\\_Programs/Non-US\\_Student\\_Programs.htm](http://www.iie.org/Content/NavigationMenu/Programs_Portal/Browse_Programs/Non-US_Student_Programs.htm)]

#### 영어학습 프로그램 및 인턴십 정보

**집중영어 USA(Intensive English USA)**는 이 분야에서 미국 유학 기회를 모색하는 외국 학생들을 위한 주요 정보 출처이다.

이 안내서는 국제교육인스티튜트가 발간하여 미국정부 미국유학상담센터(Education USA Advising Center)를 통해 전 세계로 배포된다. 인쇄본과 아울러 집중교육 USA 온라인은 외국 학생 및 교육상담센터를 위한 쌍방향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한다.

[<http://www.intensiveenglishus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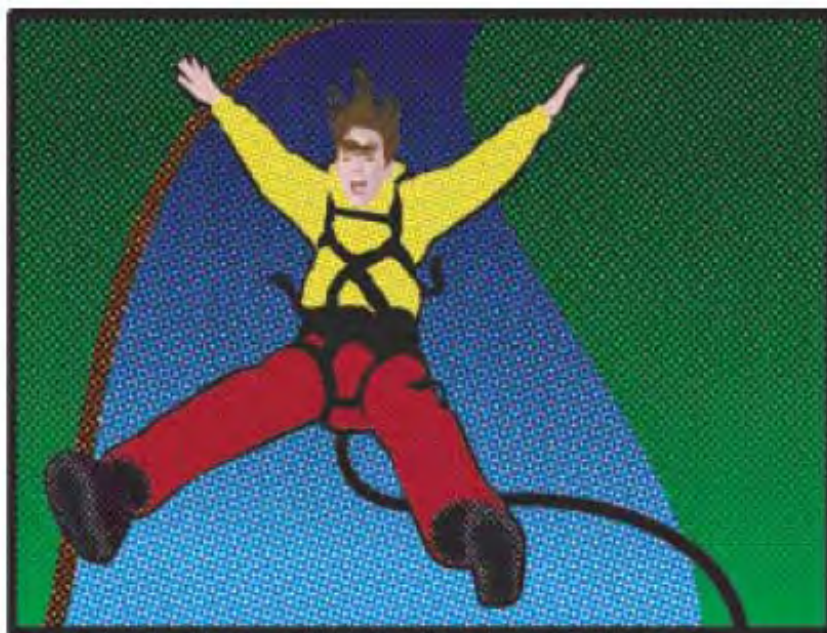
**미국에서 공부하자!(Study in the USA!):** 이 웹사이트는 ‘영어집중학습’ 커리큘럼을 원하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위한 교육 가이드이다.

[<http://www.studyusa.com/>]

**USArts 국제 교육훈련 및 인턴십 프로그램(International Training and Internship Program):** 해외 및 미국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미국의 예술·문화 관련 기관에서 실지 훈련을 받고 인턴 과정을 밟는 프로그램이다.

[<http://www.usartstraining.org/intlstep.php>]

미국 정부는 타 기관 및 조직에서 제공한 자료의 내용과 이용 가능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모든 인터넷 링크는 2007년 7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A MONTHLY JOURNAL  
ABOUT THE UNITED STATES  
OFFERED IN MULTIPLE  
LANGUAGES**

**Five Thematic Editions:**

Economic Perspectives  
Foreign Policy Agenda  
Global Issues  
Issues of Democracy  
Society & Values



**REVIEW THE FULL LISTING OF TITLES AT  
<http://usinfo.state.gov/pub/ejournalusa.html>**